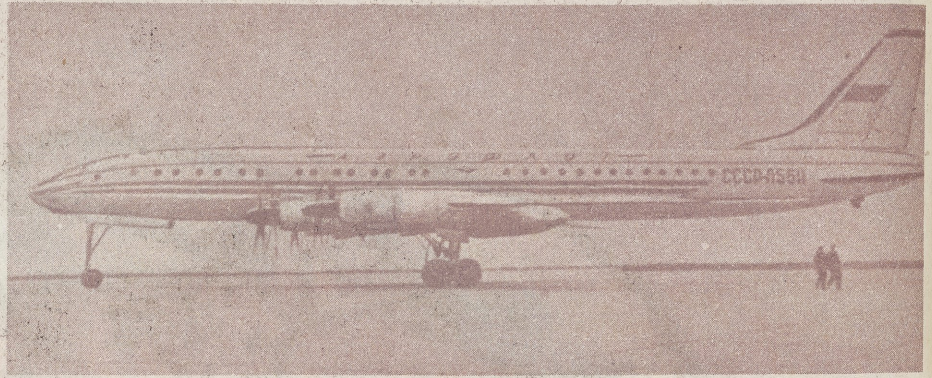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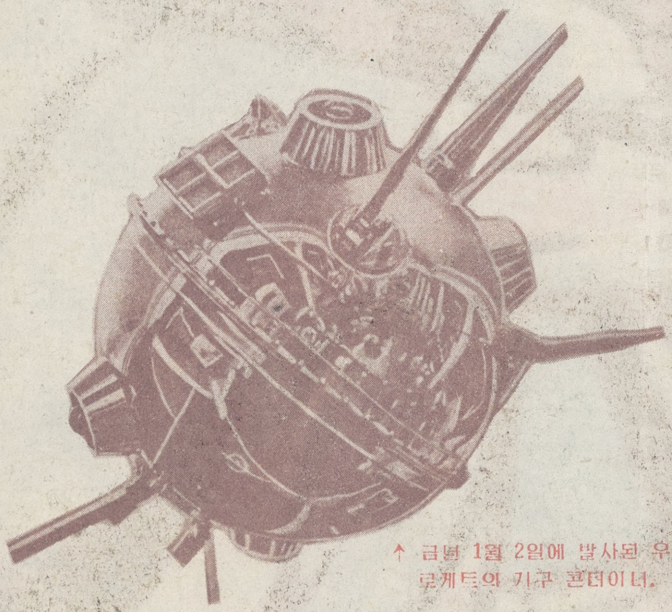
청년생활

195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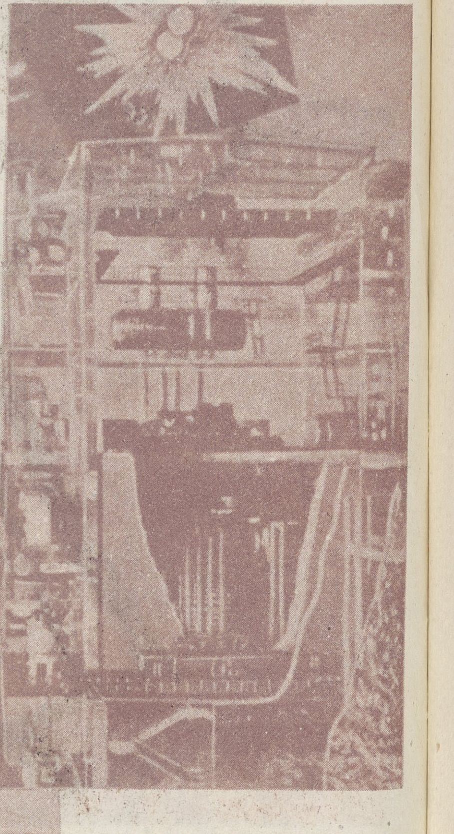
쏘베트 과학의 위대한 승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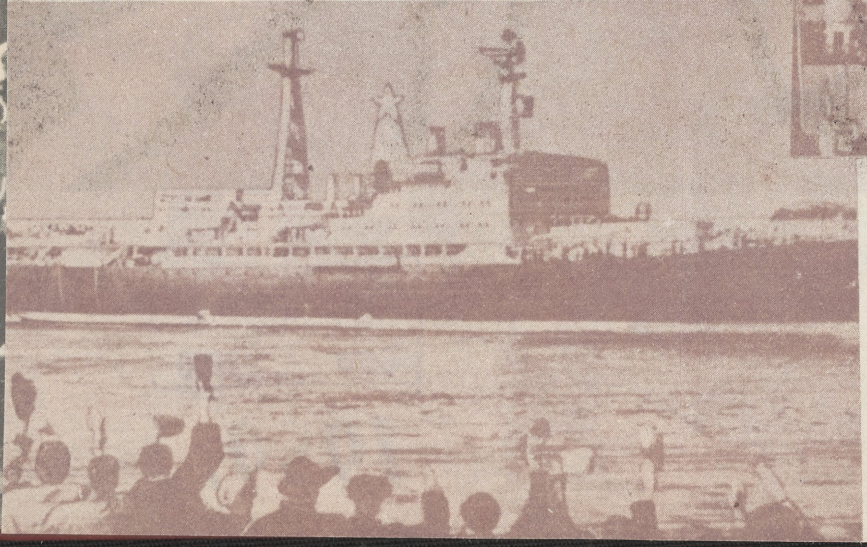
→ 《뚜-114호》 려객기.



↑ 금년 1월 2일에 발사된 우주 로케트의 기구 콘테이너.



↑ 우랄에 건설되고 있는 출력 400,000 키로와트의 원자력 발전소 브로크의 마케트.



← 원자 쇄빙선《레닌호》의 첫 항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권두언: 전 조선 청년들은 일치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자! ……………………(2)
붉은 심장으로……………………리 종균(4)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전 몽주(8)
인민 교육 발전을 위한 혁명적 조치……………………리 락언(10)
견고한 단결의 중심……………………송 선경(12)
독로강의 기념비……………………강 영수(14)
광주 학생 운동 30주년……………………김 희일(16)
수상님의 교시대로 살며 일하는 청년들……………………윤 세웅(18)
정치 강좌: 조선 로동당과 민청……………………(20)
어느 한 일요일에……………………하 만춘(24)
재담: 뿌리를 뽑자! ……………………우 봉일(26)
혁명 투사들의 심장의 기록……………………김 재하(28)
련쇄 만화: 만수의 세계 려행(남조선에서)……………………글 박 승수 그림 전 의남 (30)
청년 오락실……………………(32)

표지 1면—출강 시간은 박두하였다……………………최 동수 그림
표지 4면—가을의 삼지연……………………천 창원 그림

편집 위원회 리 홍종(주필)
전 성근 박 춘실 지 장린
박 승수 송 선경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1959년 11월 5일 인쇄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1959년 11월 10일 발행
(값 30 전 ㄱ--30661) 105,000부 발행

11
(122)
1959

권두언

전 조선 청년들은 일치 단결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자!

지체시킬 수 없는 전 민족적 지상 과업

14 년간이나 계속되는 조국의 분렬을 시급히 종식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불타는 념원이며 전 민족적 지상 과업이다.

조국의 분렬은 나라의 전반적 발전에 엄중한 장애를 주고 있으며 모든 조선 사람들의 사회 및 개인 생활에 까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 최근 시기에 이르러 남조선 정세에는 더욱 심각한 변화가 일어 나고 있다. 남반부의 경제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더욱 깊이 빠져 들어 가고 있으며 인민들과 청년들의 생활은 더는 그대로 살 수 없는 절망적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남조선의 이 엄중한 사태는 지속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이 절박한 고통에서 지체 없이 구원되여야 한다.

최근 시기 국제 정세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 났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완강한 노력에 의하여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위한 투쟁에서 현저한 전진이 이루어졌으며 평화와 회담의 리념이 국제 관계를 지배하게 되였다. 세계 인류는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인한 극동에서의 평화에 대한 위협을 즉시 제거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변천된 국내외 정세는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의 견지에서나 공고한 세계 평화의 견지에서나 분렬된 조선의 통일 문제는 더는 지체시킬 수 없는 절박하고 성숙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얼마 전에 열렸던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6차 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공화국 정부의 방안을 심의하고 대한 민국 민의원 및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과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일치한 의사를 표명한 회의의 력사적 문헌들은 전체 조선 인민과 청년들을 평화적 조국 통일 위업에 대한 필승의 신념으로 더욱 고무하고 있으며 반미 구국 투쟁의 더욱 거세찬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

명백하며 확고 부동한 우리의 립장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지난 14 년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립장과 기본 원칙은 명백하며 확고 부동하다. 그것은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조선 사람의 손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외국 군대를 완전히 철거시키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전 조선적 자유 선거에 의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것이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 인민 자신이다. 때문에 조선 문제를 조선 인민이 해결하는 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조선 인민은 외국의 간섭에 의하여 자기의 자유와 독립이 구속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조선 문제는 또한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 앞에는 남북 조선 인민이 단결하고 협상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을 달성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제의 사촉 하에 동족 상쟁의 참화를 초래하는가의 두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 인민이 걸을 길은 오직 단결과 협상으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길 뿐이다. 우리 청년들은 전쟁을 극도로 증오하며 동족 상쟁의 비극을 결코 원치 않는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져 오기 위하여서는 정전이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되여야 한다. 때문에 전체 조선 청년들은 남북 조선의 병력을 축소할 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지지한다. 조선 청년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정전 협정 위반과 전쟁 책동을 결코 용허할 수 없으며 그들의 새 전쟁 도발 음모를 걸음마다 파탄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남반부 청년 학생들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강제 징집과 학원의 군사화를 단호히 반대하여 더욱 용감히 투쟁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미군 철거는 평화적 조국 통일의 선결 조건이다

조선의 민족적 불행과 조선에서 산생되는 새 전쟁 위협의 모든 화근은 바로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만일 미군이 남조선에 들어 오지 않았더라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벌써 성취되였을 것이며 미군이 철거하였더라면 남조선 인민은 벌써 불행에서 구원되였을 것이다. 때문에 전체 조선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미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 침략군은 중국 인민 지원군이 철거한지 1년이 넘는 오늘까지 남조선에서 물러 가려 하지 않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적 야욕을 계속 버리지 않고 정전 협정을 위반하면서 전쟁 도발 흉책을 감행하고 있다. 한편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한 야수적 략탈 정책을 계속하며 천인공노할 탄압, 학살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지 않고서는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성취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을 절박한 고통에서 구원할 수 없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을 아무러한 리유도 구실도 있을 수 없다. 미제 침략군은 조선 강토에서 살륙 무기와 유엔의 기'발을 걷어 가지고 당장 물러 가야 한다.

전체 조선 청년들은 우리 강토를 페허로 만들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무참히 학살한 불구 대천의 원쑤인 미군의 마지막 한 놈이 남조선에서 물러 갈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 조선 청년들의 단결과 협상 교류를 주장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단결과 협조이다. 단결과 협조는 우리 승리의 담보이며 분렬과 반목은 미제 침략자들에게 리로울 뿐이다. 우리는 남조선 청년들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한리념 밑에 우리와 함께 손을 굳게 잡고 단결할 것을 주장하며 남북 조선 청년 학생 단체들이 련합할 것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단결을 위하여서는 남북 조선 청년들 간의 호상 접촉과 과학,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치는 련계와 교류가 실현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 조선 청년 단체들과 혹은 개별적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국의 륭성 발전과 청년들의 미래에 대하여 흉금을 털어 놓고 협의하며 명년에 맞이하는 8. 15 해방 15 주년에 평양에서 전 조선 청년들의 예술 축전과 체육 축전을 공동적으로 진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남조선의 실업 청년들과 배움의 길을 잃은 학생들이 북반부에 들어 온다면 그들을 언제나 환영하며 그들에게 취직과 취학 및 모든 생활 조건을 보장하여 줄 것이다. 북반부 청년 학생들은 청년 건설대를 남조선에 파견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파괴된 리재민들의 주택과 부족되는 학교 교사를 지여 주며 젊은 의사와 간호원들을 파견하여 질병에 허덕이는 남조선 병자들을 치료하여 줄 준비가 되여 있다.

이제 남북 조선 인민과 청년들이 하나로 통일 단결된다면 조국은 평화적으로 통일될 것이며 3천리 강산에는 반드시 인민의 락원이 건설될 것이다.

현 국제 국내 정세는 우리 혁명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쏘련 내각 수상 흐루쑈브 동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우리 인민의 립장을 확고히 지지하는 쏘련 정부의 립장을 재천명 하였다. 흐루쑈브 동지의 연설은 우리를 더욱 고무하여 주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성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물질적 힘이며 남북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무한히 고무한다. 전체 청년들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같이 단결하여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릴 것이다.



오체르크

붉은 심장으로

리 종 준

이깔나무와 분비나무가 우중충하게 들어 선 수림 속을 헤치며 빨찌산들은 행군을 계속하였다. 짙은 어둠의 장막이 내리 드리워 사위는 캄캄하였다.

대원들은 온 몸을 땀으로 흠뻑 적시였으나 숨 돌릴 사이도 없이 걸음을 다그쳤다. 대렬은 산을 넘고 숲을 지나 묵묵히 앞으로 앞으로 나아 갔다.

대렬 선두에는 젊은 정치 위원 양 형우 동지가 걸어 가고 있었다. 그는 산을 하나 넘어설 때마다 서쪽 산마루 우에 걸려 있는 삼태성을 바라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밤'중으로 대사하에 도착해야 한다)하고 속으로 되뇌이군 하였다.

그의 련대 (조선 인민 혁명군 제 14 련대)는 바로 대사하 《집단 부락》을 불의에 포위 공격할 전투 임무를 받은 것이다.

정치 위원은 수백 회의 전투를 겪어 왔지만 이번처럼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을 느껴 본 일은 드물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전투가 직접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는 큰 작전의 중요한 고리로 되기 때문이였다.

그 해 (1939년) 5월에 몽고 인민 공화국에 대한 도발 사건을 일으킨 일제 침략자들은 나아 가서는 쏘련의 원동 지방까지 강점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것은 그전 해 여름에 있은 하싼호 침공 (장고봉 사건)의 연장이였다. 빨찌산들은 세계의 첫 사회주의 국가인 쏘련에 대한 일제의 도발적 흉책에 대하여 치솟는 격분을 참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김 일성 원수께서는 쏘련을 침노하려는 일제 침략군의 후방을 대대적으로 교란하는 대규모의 기동 작전을 전개함으로써 도처에서 놈들의 수송로와 군사 시설들을 파괴하며 적의 병력을 대량적으로 섬멸할 명령을 빨찌산 부대들에게 내리시였다.

그리하여 련대는 멀리 북쪽에서 이 지방에 도착하자 곧 새로운 전투 임무를 받고 행동을 시작하게 되였던 것이다.

밤새 산'길을 치달아 온 빨찌산들은 꽤 피곤한 기색이였다. 어둠 속에서 가쁜 숨 소리들이 갈수록 높아만 졌다.

정치 위원은 대렬을 돌아 보며

《동무들! 목적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오!》

하고 대원들의 사기를 고무하였다. 그는 힘들어 하는 대원들의 배낭과 무기를 거들어 주기도 하며 행군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에 힘썼다.

정치 위원은 숨을 헐떡거리며 잽싸게 걸어가는 전령병의 곁에 이르자 측은한 생각이 들어 말을 걸었다.

《행군이 퍽 힘들지?》

《괜찮습니다.》

전령병은 애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이도 젊었거니와 남달리 키가 작은 전령병은 총탁이 발뒤'꿈치에 부딛치는 것이 시끄러워 줄곧 한 손으로 총'가목을 움켜 잡고 걸었다.

《총을 이리 주, 내 좀 메다 주지.》

정치 위원은 전령병에게로 손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전령병은 이렇게 소리치며 몇 발'자국 앞으로 달려 나가기까지 하였다.

정치 위원은 대견스러운 생각에

《삼도령을 넘을 때 하고는 퍽 달라졌는 걸.》

하고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말하였다. 정치 위원이 불쑥 던진 이 말은 전령병의 머리 속에 지난 여름에 있은 일들이 삼삼히 떠오르게 하였다.

그 때 부대는 경박호에 있는 수력 발전소를 습격하였다. 일제 놈들은 이 발전소를 건설하여 군수 공장들을 돌리며 쏘련을 침공하기 위한 흉악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음을 타고 불의에 발전소를 습격한 빨찌산 부대는 발전소 시설들에 불을 지르고 충천하는 화광을 뒤에 남긴 채 귀로에 올랐다.

당황 망조한 일제 놈들은 부랴부랴 3~4 개 련대 가량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빨찌산 부대의 뒤를 따르기 시작하였다. 부대는 세 개 방향으로 나뉘여 각기 적을 다른 방향으로 류인하여 분산시킨 후 소멸할 계획으로 행군을 하게 되였다.

이 때 정치 위원은 2 중대와 6 중대를 지휘하여 세찬 비'바람 속을 뚫고 하늘에 닿을 듯 아득히 높은 삼도령을 넘었었다. 삼도령은 가파롭고 험한 바위로 뒤덮인 험산 준령이였다. 풀포기를 잡으면 뿌리채 뭉청 뽑히고 요행 나무가지를 잡아도 우지끈하고 부러져 나갔다. 대원들의 손'바닥과 무릎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다.

곤난은 그것 뿐이 아니였다. 령을 오르기 전까지는 노랑꽃이나 풀 열매를 뜯어 먹으며 견디였으나 이제는 그것마저 없었다. 입대한지 얼마 안 되던 전령병에게는 참으로 그 이상 어려운 일이 없었다. 기진하여 땅'바닥에 주저 앉으면 땅이 핑핑 돌고 눈 앞에는 동그라미가 수없이 어른거렸다.

그 때 정치 위원은

《기운을 내오, 이만한 곤난을 견디지 못하구서야 어떻게 왜놈들과 싸워 이기겠소. 자 어서 내 팔을 붙잡소.》

하며 배낭을 벗겨 자기가 둘러 메였다. 그도 대원들과 꼭 같이 며칠 동안 계속 비를 맞으며 풀 열매만으로 지내온 터가 아닌가!

눈'시울이 뜨거워진 전령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를 악물고 정치 위원의 뒤를 따랐다.

령을 한 절반쯤 올랐을 때 정치 위원은 대원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부석부석한 얼굴들을 유심히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소. 그러나 이쯤한 난관 앞에 굴한다는 것은 우리 빨찌산들의 품성이 아니요… 무릎으로 기여서라도 이 산을 넘어야 합니다. 자 모두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그는 앞장을 섰다. 대원들은 있는 힘을 다 내여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톺아 오르기 시작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끝끝내 한 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목적지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 때부터 전령병은 그 무슨 힘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정치 위원에게는 사람들의 심장을 잡아 끄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였다.…

한참 후에 전령병은 무엇을 생각하였는지 정치 위원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다.

《정치 위원 동지! 우리는 앞으로 쏘련에 가 볼 수 있을가요?》

《가 볼 수 있구 말구. 왜 갑자기 쏘련에 가구픈 생각이 났소?》

정치 위원은 뜻밖의 물음에 저으기 호기심을 가지고 반문했다.

전령병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집은 듯이 입을 열었다.

《저는 아동단 때부터 쏘련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 행복한 나라

를 꼭 한 번 내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지금 이렇게 쏘련을 옹호하여 싸우는 전투에 나서게 되니 그 생각이 부쩍 더 치밀어 오릅니다.»

«음, 거 신통히 내 생각과 같군. 우리는 앞으로 얼마든지 쏘련에 가 볼 수 있을 것이요. 뭐따도 가고 또 쏘련의 선진 경험을 배워 우리 조국 땅 우에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해야 할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도 바로 그러한 념원이 실현되는 날을 앞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겠소?»

젊은 정치 위원의 정열적인 목소리는 어느 덧 빨찌산 대원들의 고동치는 심장 속으로 스며 들어 가는 것이였다. 그들은 저마끔 행복하고 보람찬 앞날을 눈 앞에 그리면서 끓는 가슴을 안고 힘차게 발'걸음을 다그치였다.

행군 대렬이 민틋한 산 하나를 넘어 섰을 때 거기에는 후련히 트인 벌판이 나타났다. 목적지가 가까와진 것이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 오자 멀리에 토성의 둔곽과 그 우에 우뚝 솟은 포대가 바라보였다. 그곳이 바로 대사하 «집단 부락»이였다.

런대는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앉은 적들을 포위 소멸하는 동시에 이를 구출하기 위하여 명월구와 안도현성에서 오는 놈들의 응원군을 도중의 유리한 지형에 매복하였다가 때려 부실 작정이였다. 이것은 쏘련에 대한 침공을 기도하는 일본군의 깊은 배후인 동만에 있는 적 병력의 대집단을 소탕함으로써 놈들의 전략적 기도를 파탄시키려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므로 이번 대사하 대장강 일대의 전투에는 안 길, 최 현, 전 동규 동지들이 지휘하는 빨찌산 부대들이 서로 협동하여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양 형우 동지는 대원들을 토성 부근에 감쪽같이 접근시켰다. 그리고 북문과 서문으로 들어 갈 계획으로 그 옆에 있는 채마 밭 일대에 은폐하도록 하였다.

날이 밝으면 성안의 인민들이 문 밖으로 몰길러 나올 것이므로 그 때 이미 조직한 사복대 성원들에게 물 지게를 바꿔 메워 가지고 성안에 들어 가게 한 다음 경찰서와 포대를 점령할 계획이였다.

그러는 사이에 적들로 하여금 응원군을 청할 여유를 주고 신속하게 소사하 고개로 달려 가 안도현성에서 오는 적의 응원대를 소멸할 작정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 뜨기 얼마 전에 정문 안에서 일본 놈 한 놈이 밖에 나왔다가 유격대원들을 발견하고 기겁을 하여 안으로 뛰여 들어 갔다. 사태는 긴장하여졌다. 지휘부에서는 매복한 대원들에게 즉시 성안에 돌입하여 적을 소멸할 것을 명령하였다.

돌격 명령이 내리자 숨을 죽이고 기다리던 대원들이 밀물처럼 적진으로 돌입하면서 맹렬한 사격을 가하였다.

당황한 적들은 어쩔 바를 몰라 했다. 잠시 후에 놈들은 견고한 포대에 의지하여 기관총을 쏘아 대기 시작했다. 적아간에는 맹렬한 싸움이 계속되였다.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올랐다. 빨찌산들은 적들이 경찰서 부근에 있는 큰 지주네 집에 주의를 덜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집 벽을 뚫고 포대에 접근하여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나 포대는 파괴되지 않고 다시 불을 뿜었다.

급해 맞은 적들은 전화통에 대고 응원군을 청하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야단 법석이였다.

적을 유인하려는 빨찌산 지휘부의 타산은 적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다. 놈들의 응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성안의 적을 없애 버려야 했다.

«동무들! 포대를 점령하기 위한 돌격대를 조직해야겠소.»

양 형우 동지는 대원들 앞에 나서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포대를 쏘아보는 그의 눈에서는 불꽃이 튕기는 듯했다. 대원들은

«정치 위원 동무! 내가 가겠습니다.»

«나두 가겠습니다.»

하고 저마다 앞을 다투어 나섰다. 그들의 머리 속에는 행군이 시작될 때 정치 위원이 하던 말이 번개치듯 떠올랐다.

«동무들!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여 마지않는 사회주의 조국이며 우리의 벗의 나라인 쏘베트 동맹을 직접 무장으로 옹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 조국을 쏘련과 같이 착취가 없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쏘련을 옹호하여 싸우는 것은 곧 우리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입니다. …»

그 때 모든 대원들은 두 주먹을 부르쥐고 맹세하였었다. 이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자고, 자기 목숨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자고…

돌격대는 우박치는 탄우 속을 뚫고 쉴새 없이 불'줄기를 내뿜는 적 포대에 육박하여 그 아가리에 수류탄 묶음을 먼저 넣었다.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과 함께 포대는 하늘로 날아 올라 갔다. 아군은 적 경찰서와 포대를 일거에 점령하였다.

전투는 예정한 시간보다 훨씬 더 걸렸다. 부대는 대사하에 일부 병력을 남겨 두고는 급히 소사하 고개로 달려 갔다.

그러나 그들이 채 고개'마루에 오르기 전에 벌써 대사하의 급보를 받은 안도현성의 왜병들이 자동차를 타고 달려와 먼저 산 마루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아군은 고개 밑 로출된 지대에서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였다. 적들은 중기, 경기, 박격포 등을 총동원하여 미친 듯이 사격을 해댔다.

한참 동안 가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아군의 형편은 점점 불리하여졌다. 양 형우 동지는(이런 때 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범으로써 대원들을 고무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고 결심하자 대원들을 향해 높은 소리로 웨쳤다.

«동무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일제놈들은 지금 쏘련을 침공하려 한다. 저놈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쳐 부시고 쏘련을 피로써 옹호하자!»

심장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웨침 소리는 대원들의 적개심을 화산처럼 폭발시켰다. 정치 위원은 싸창을 뽑아 들고 적을 쏘아 눕히며 고개'마루에로 치달아 올라 갔다.

용감한 빨찌산 대원들은 그의 뒤를 따라 비'발치는 탄우 속을 뚫고 번개같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단숨에 고개'마루를 점령하고 적 련대장 이하 수 많은 놈들을 살상하였다.

그런데 이 돌격전에서 양 형우 동지는 불행하게도 적탄에 가슴을 관통 당하였다.

그를 그러안은 대원들은

«정치 위원 동무! 정치 위원 동무!»

하고 목메인 소리로 불렀다.

그를 둘러 싼 동지들 속에는 나어린 전령병의 얼굴도 보였다.

가까스로 눈을 뜬 정치 위원은 웃음어린 얼굴로 주위에 있는 대원들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 너무 상심하지 마오.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혁명이 승리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원통할 뿐이요…»

멀리 푸른 하늘'가에 뭉게뭉게 흰 구름이 피여 나는 남쪽 하늘을 바라보던 정치 위원은 머리를 천천히 돌려 북쪽 하늘을 바라 보았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위대한 쏘련이 있는 한, 김 일성 장군이 계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동지들, 쏘련을 옹호하여 끝까지 싸워 주시오….»

여기까지 말하자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자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붉은 심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여 싸운 공산주의 투사 양 형우 동지의 장렬한 최후는 모든 대원들의 가슴 속에 원수들에 대한 더욱 거센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다시금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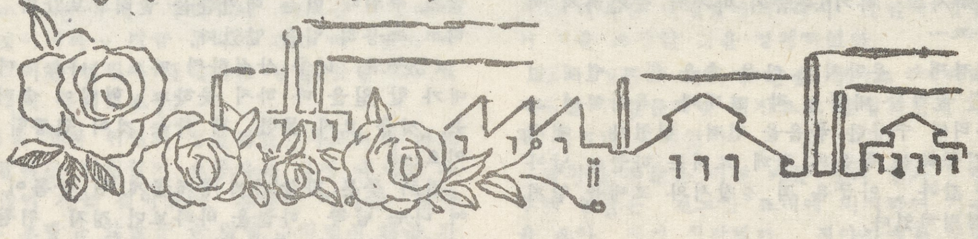
그의 유언을 충실히 지킬 것을 굳게 맹세한 빨찌산 대원들은 계속되는 전투에서 원수들에게 보복의 불벼락을 안기였다.

그날 전투에서 빨찌산 부대는 대장강 «집단 부락»과 채피거우의 적을 소탕하고 명월구 쪽에서 오는 적의 증원대를 거의 전멸시켰다. 그 이튿날에는 또 남거우 골짜기에서 일대 섬멸전을 전개하였다. 이 섬멸전에서는 가장 악질적인 왜놈들의 «미야모도» 부대가 녹아 났다.

이틀 간에 걸친 전투에서 적들은 5백 여 명의 손실을 보고 패주했다.

이렇게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항일 빨찌산들은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라는 구호 하에 피어린 투쟁과 승리의 길로 계속 확신성 있게 전진하였던 것이다.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



선천 영예 군인 일용품 공장 지배인

공화국 영웅 전 몽 주

력사적인 전국 지방 공업 및 생산 협동 조합 대회의 감격과 희망의 나날을 나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을 가까이 모시고 해방 후 우리 나라 지방 공업의 발전,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에서 얻은 거대한 성과를 총화하고 지방 공업의 금후 가일층의 발전을 위한 과업을 토의하는 이 대회에 참가한 영예와 기쁨을 한 마디로 형언하기 어렵다.

실로 이 대회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력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회의였으며 이 대회는 우리 당의 지방 공업 발전과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총화하는 승리의 대회였다.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이후 오늘까지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우리 나라 지방 공업 공장, 기업소는 2천 여 개로 증가되였다. 금년에 지방 공업의 생산액은 우리 나라 공업 총생산액의 27.5%를 차지하게 되며 전체 인민 소비품 생산의 45.1%를 차지하게 된다.

김 일성 원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는 사람들을 경탄케 하는 기적적인 업적들과 글로써나 말로써는 다 형용할 수 없는 실로 눈물겨운 감격적인 사실들이 허다하며 이러한 영웅적이고 용감한 투쟁은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의 단결된 힘으로만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리 공장이 걸어 온 길을 돌이켜 보았다. 우리 일용품 생산 협동 조합은 1954년 9월, 15 명의 영예 군인들로 조직되였다.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3년 세월 목숨으로 조국을 수호한 우리들은《비록 불구가 된 몸이지만 생산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하자》고 굳게 결의하였다. 폐허 우에서 일을 갓 착수한 우리에겐 설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에는 당에 대한 충실성이 들끓고 있었다.

초기에 우리들은 작업장도 불비하고 설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건하에서 노로와 밥상 하나 온전히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 조합을 공고히 하며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앞길엔 곤난이 많았다. 곤난에 부닥쳤을 때 마다 우리는 전쟁 시기 미제 원쑤를 반대하여 싸우던 때를 생각하였다. 나는 전쟁 기간에 고사포병으로 목숨을 걸고 미국 비행기를 6 대나 격추하였다.

점차적으로 확장 강화된 우리 공장은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 결정에 고무되여 우리 지방에 있는 왕골과 버들을 탐구하여 바스케드, 돗자리, 꽃바구니 등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여 왕골 제품을 대외에 수출하고 있는바 이것은 외국에서도 대환영을 받고 있다.

지금 우리 영예 군인 일용품 공장은 40 여 대의 농이 베는 기계와 볼반까지 갖춘 공장으로 발전하였다. 종업원은 영예 군인이 180 명이며 그의 가족들이 120 명이다. 우리 공장은 문'자 그대로 영예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로 조직되여 있다.

우리 나라 모든 지방 공업 및 생산 협동 조합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당의 따뜻한 손'길과 배려하에 우리 공장은 발전하였으며 강화되였다.

이번 대회는 금후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명시하여 주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에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결론이 있었다. 대회장에 모인 4,300 여 명의 지방 산업 전사들은 우리를 승리에로 인도하여 주신 그이에게 무한한 감사와 열렬한 축하를 드리였다.

김 일성 원수는 결론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방 공업 발전이 가지는 력사적 의의를 강조하시고 당의 호소와 결정을 받들고 짧은 기간내에 우리가 거둔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찬양하시였다. 김 일성 원수는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천리마의 고삐를 튼튼히 틀어 쥐고 계속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적하신 다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명철하게 가리켜 주시였다.

대회가 끝난 후 김 일성 원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영예 군인들을 만나 주시였다. 그이는 어버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생활 형편과 생산 정형에 대하여 상세히 물어 보시고 우리를 고무하여 주시였다. 수상 동지는 우리들에게 누구보다도 더 조국을 사랑하고 당과 당 중앙 위원회를 튼튼히 보위함에 있어서나 그의 로선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사회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한 진군에서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수상 동지는 전쟁 시기 우리들의 헌신적 복무를 높이 찬양하시고 《꽃은 계속 피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동무들은 《과거에 내가 조국을 위해서 꽃을 피웠다. 지금도 꽃을 피우고 앞으로도 꽃을 피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당과 조국을 위하여 계속 전진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속 투쟁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였다.

대회의 정신과 수상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우리는 지방에 있는 원료 원천을 탐구하며 그것을 확장할 계획이다. 우리는 벌써 많은 물구덩이에다 왕골을 심었는데 이것을 더 확장하여 더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겠다. 금년에만 하여도 우리는 길이 2 메터, 너비 1 메터의 돗자리를 2천 매나 생산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공예품 직장과 돗자리 직장을 더욱 확장하여 수출품 직장으로 만들고 질 좋은 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는 데 특히 주목을 돌리겠다. 우리 공장 180 명의 영예 군인들은 모두가 불구가 된 몸이다. 수상 동지는 어버이 같은 심정으로 국가적으로 방조를 주겠으니 자신들의 생산을 기계화하여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끔 자동화하라고 가르치셨다. 우리는 생산에 기계를 도입하며 광범한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여 일을 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경애하는 수령께서는 우리의 생활이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되도록 하라고 한두 번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비록 불구의 몸이지만 당과 경애하는 수령의 자애로운 배려와 전체 인민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광활한 전망이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매 시각마다 환희와 랑만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교시 대로 문화 생활과 오락 사업을 강화하겠다.

우리는 수상 동지의 높은 신임과 깊은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이의 영광스러운 전사답게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할 것이다.

우리는 전투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들 처럼 이 영예로운 당적 과업을 수행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당성을 더욱 단련하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당을 튼튼히 보위하는 근위대가 되겠다.

나는 이번 수상 동지와의 담화에서 수상 동지께서 얼마나 우리의 영예 군인들을 사랑하며 애끼고 있는가를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들에 대한 당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를 가슴 깊이 간직하였다.

나는 우리 공장 전체 영예 군인들과 아니 우리 나라 전체 영예 군인들과 함께 경애하는 수령 앞에 이렇게 맹세 다졌다.

《수상 동지, 꽃은 계속 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꽃을 피울 것입니다》라고.

인민 교육 발전을 위한 혁명적 조치

편집부는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6차 회의에서 채택된 인민 교육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법령과 관련하여 교육 문화 부상 리 락연 동지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에 그를 게재한다.

문—인민 교육 체계는 어떻게 개편되는가?

답—금번 개편에 의하여 현재까지의 고급 중학교는 2~3년 내에 폐지되고 일부 중등 기술 전문 학교와 고등 기술 전문 학교는 1964년도까지 폐지되며 사범 전문 학교와 현 교원 대학은 1963년도까지 폐지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교육 체계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개편되며 전반적으로 재정비 강화된다.

기본 교육 체계— 유치원, 4년제 인민 학교, 3년제 중학교, 2년제 기술 학교, 2년제 고등 기술 학교, 4~5년제 대학과 4년제 연구원으로 이루어 진다.

성인 교육 체계—2년제 근로자 학교, 3년제 근로자 중학교로 이루어진다.

야간 및 통신 교육 체계—2년제 야간 기술 학교, 2년제 야간 및 통신 고등 기술 학교, 4~5년제 야간 및 통신 대학으로 이루어 진다.

사범 교육 체계—기술 학교 졸업생을 입학시키는 3~4년제 교원 대학 (유치원 교양원은 3년, 인민 학교 및 중학교 교원은 4년)과 고등 기술 학교 졸업생을 입학시키는 4년제 사범 대학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 교원 양성)으로 이루어진다.

체육 및 예술 교육 체계—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4년제 체육 학교 와 인민 학교 단계로부터 시작되는 11년제 예술, 외국어 학교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개편된 인민 교육 체계는 기술 의무 교육제를 본래 예견한 기한보다 1 년간 앞당겨 1962~1963 학년도부터 실시하여 9년제 의무 교육제로 넘어 가게 하며 앞으로는 고등 기술 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제를 예견하고 있다.

문—인민 교육 체계를 새로 개편하는 필요성은 어데 있는가?

답—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여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인민 교육 체계를 재정비 강화할 필요성으로부터 개편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이미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되여 생산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급속한 사회 경제적 발전은 복잡한 기계와 계기를 다룰 줄 알며, 도면을 볼 줄 알며, 현대적 생산을 능숙하게 관리 운영할 줄 아는 지식과 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재들을 다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발전의 요구에 순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교들은 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과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물질적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 앞에 제기된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학교들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결합하는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되여야 한다.

맑스는 일찌기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은 사회적 생산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될 뿐만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을 교양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김 일성 동지를 위시한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유격 대원과 인민들 속에서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며 또한 배우면서 싸우며, 싸우면서 배우는 혁명적 교육 방법의 전통이 이루어졌다.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정확한 교육 정책에 의하여 인민 교육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우리 나라 인민 교육 체계 특히 고급 중학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 기능을 습득시키지 못하였으며 직접 생산 로동 속에서 지식과 기술 기능을 습득할 가능성을 주지 못하였다. 결과는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유리되며 집단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 동지애와 호상 방조 정신 등의 집단주의 정신의 배양에도 저해를 주고 있다. 때문에 현존 교육 체계, 특히 고급 중학교는 실생활과 맞지 않는 낡은 것으로 되여 그가 존재할 의의를 상실하게 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금번 실시되는 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은 이러한 결함들을 퇴치하고 교육과 생산 로동의 유기적인 결합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현실 발전의 요구에 적응시키는 가장 적절한 혁명적 조치로 되는 것이다.

문—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은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답—그것은 첫째로 실 생활에 가장 적합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들에서 청년들은 현대적 생산의 어느 한 부문에서 복잡한 기계와 계기들을 다룰 수 있으며 자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중등 일반 교육도 완성하게 된다. 학생들은 배운 지식을 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하며 사물과 현상에 대한 교조주의, 주관주의적 사고 방법과 태도를 시정케 함으로써 사회 실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회, 경제,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둘째로 청년들의 공산주의 교양에 큰 도움을 주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교육과 생산,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을 결합시키는 새 인민 교육 체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단련되게 하며 그들의 사회적 실천에 대한 조직 능력과 강한 실천적 의지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규률성과 집단주의 정신 등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소유하게 한다.

셋째로 새로 개편된 인민 교육 체계는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고무하는데 거대한 의의가 있다.

문—인민 교육 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청년들 앞에 제기된 과업은 무엇인가?

답—인민 교육 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는 많은 학교들을 건설하며, 실습 공장, 실습 농목장, 교구, 교편물들을 부단히 보충 확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대한 물질적 토대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힘과 함께 전 인민적, 전 사회적 관심과 지원 운동이 동반되여야 한다. 때문에 청년들은 우선 인민 교육 체계 개편의 목적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이 운동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며 자원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공장, 기업소, 농업 협동 조합, 과학 연구 기관 내 청년들은 일정한 학교를 담당하여 그 학교를 지원하는 운동을 광범히 조직하는 한편 자기들이 절약한 자재와 사회적 로동으로써 학교 실습 공장을 비롯한 기술 설비를 보장하여 주는 창발적인 사업들을 조직하여야 한다. 또한 로동 청년과 농민 청년들은 학생들의 기술 습득과 생산 로동을 방조하기 위하여 각종 크루쇼크 지도자로 동원되는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 과학 연구 기관, 국가 관리 및 경제 기관 내 모든 청년들은 자기들이 담당한 기본 사업 이외에 기술 학교와 고등 기술 학교 교수를 담당하는 사업에도 광범히 동원되여야 한다. 교원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당적 사상 체계로 튼튼히 무장하는 동시에 정치, 실무적 자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며 학생들에게 당의 정책, 혁명 전통 교양과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청년들은 학교 내에서 공작 기계 새끼치기 운동, 창의 고안, 발명 합리화 운동 등을 광범히 전개하여 교내에 필요한 시설, 까비네트, 각종 실험 기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 학교를 사랑하며 좋은 성적을 쟁취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혁명 선배들처럼 당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싸우는 백절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붉은 전사가 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견고한 단결의 중심



송 선경

인류는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최근의 《3대 려행》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그 하나는 쏘련 내각 수상 흐루쑈브 동지의 미국 방문이고 또 하나는 달 로케트의 성공적 발사이며 다른 하나는 원자력 해빙선 《레닌》호의 첫 항해이다. 우리는 공산주의의 위력을 시위하는 이 력사적인 사변들 앞에서 가슴에 차고 넘치는 흥분을 금할 수 없다. 인간 생활에 있는 모든 려행이 그러하듯이 이 《3대 려행》 역시 자기의 목적을 갖는다. 흐루쑈브 동지의 미국 방문은 인류의 머리 우에 무겁게 떠 도는 랭전의 검은 구름'장을 몰아 내고 평화의 따스한 훈풍을 가져 오는데 기여하였으며 쏘련의 원자력 및 로케트 과학의 대행군은 미지의 우주 세계와 대자연의 비밀을 인류의 복리 증진과 결합시키는데 세기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 력량은 제국주의를 압도하고 있으며 평화는 전쟁을 승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공산주의 승리의 시대에 살면서 첫 사회주의 국가이며 오늘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인 쏘련에 대하여 항상 깊은 감사의 뜻을 금하지 못한다.

병사들은 돌격대원이 개척한 길을 따라 적고지에로 돌진한다. 돌격대원은 병사들의 전진을 위하여 가시덤불과 풍랑을 헤치며 천신만고를 겪는다. 우리가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하고 말할 때 먼저 승리의 진격로를 개척하는 돌격대원을 생각하며 병사의 마음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첫 돌격대원인 쏘련을 존경하고 그의 경험을 배우며 그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가!

위대한 레닌과 공산당의 령도 밑에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철쇄를 끊고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한 로씨야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적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백파 도당들과 외래 무력 간섭자들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히틀러 파시스트 도배들과의 싸움에서 막대한 희생을 당하였고 악전 고투하였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지침으로 삼고 있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말할 때 위대한 로씨야 로동 계급과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경험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확립하고 로농동맹을 강화하며 또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농촌 경리를 집단화하며 그리고 문화 혁명을 수행하고 전 세계 로동 계급들 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등 명제들은 로씨야 로동 계급과 볼쉐비크들의 실천적 경험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다. 만일 쏘련이 피로써 개척한 사회주의 혁명의 길이 없었더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쏘련의 고귀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공산주의 사상은 지난 수십년 간에 오늘과 같은 거대한 성과들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청소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쏘련이 개척한 길을 따라 그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켜 왔으며 또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브로라의 포성이 인류의 새 시대를 고한 때로부터 42 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수천 만년의 인류 력사에 비할 때 이 기간은 눈 깜짝할 새와 같은 그런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순간에 국제 력량 관계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승리 후 세계에는 자본주의 체계에 대립하는 신생 력량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형성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서산 락일의 로정에 오른 자본주의 체계는 오늘에 와서는 병든 그 숨'결이 턱에 닿아 림종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쏘련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경제, 문화, 과학의 발전 및 군사력의 강대성으로 하여 세계엔 그를 당해낼 나라가 없다. 쏘련의 경제력이 강대하기 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에서의 전면적인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7개년 계획을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그처럼 당황 망조하여 전률하고 있는 것이다.

쏘련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백방으로 원조하여 주고 있다. 쏘련의 물질, 기술적 원조는 한갓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만 미치고 있지 않다. 이 원조야말로 사심 없는 원조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숭고한 표현이다. 쏘련은 이런 원조에서 제국주의자들처럼 리윤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공산주의 승리를 찬양하는 우주의 노래가 행성간 우주 정류소의 신호기를 거쳐 지구 우에 퍼져 오고 있다. 쏘련의 과학은 마침내 우주 정복에 대한 인류의 념원을 실현할 날을 가까운 앞날로 당겨 왔다. 달 우엔 쏘련 과학자들이 띄워 보낸 공산주의 붉은 기가 꽂혀 있으며 미지의 신비로운 세계로 남아 있던 달 뒤'면의 분화구, 바다와 산'줄기는 벌써 《모쓰크바해》, 《쏘베트쓰끼 산맥》 등의 이름을 가지고 새 우주 지도상에 나타났다. 바로 이런 때 태평양 한 구석에서는 미국의 《뱅가드》가 미제의 멸망을 상징하는듯 땅'바닥에서 딩굴고 있지 않은가.

미제의 원자탄 독점을 호언 장담하던 미 국방 장관 폴레스털리가 쏘련이 원자탄 시험에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발작하여 펜다곤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지 10년이 된다. 쏘련의 무력이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가진 것도 가까운 어제의 일이 아니다. 쏘련 국방상 말리놉쓰끼 원수가 제국주의 호전분자들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 서지도 못할 것이라고 언명한 것도 벌써 오랜 이야기다. 공산주의자들은 지구에서 수천만리 상공의 달 뒤'면까지도 손'금처럼 보고 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나 아데나우어는 공산주의자들과 한유성 안에 살고 있다. 이자들은 력사적 현실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전쟁 도화선을 쓰레기통에 넣을 때가 오지 않았는가!

쏘련에서는 이미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을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승리하였다. 쏘련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할 세력은 이 세상에 없다. 최근 년간의 국제 정세는 바로 이렇게 쏘련이 강대함으로 하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안전과 세계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범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제가 대만 해협의 불장난을 더 확대하지 못했으며 영 제국주의자들이 스에즈 운하에서 손을 뗀 사실이 그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지 않은가.

위대한 쏘련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과 세계 평화에 거대한 공헌을 하였다. 첫 사회주의 국가이며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국가인 쏘련은 벌써 42년 래 세계 혁명 운동의 맨 앞장에 선 돌격대로, 그의 튼튼한 성새로, 중심으로 되고 있다. 쏘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은 수정주의자들이 떠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쏘련의 중심적 위치는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전 세계 인민들은 얼마 전에 아이젠하워와 드골 간에 충돌이 있은 것을 기억한다. 불란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였던가? 그는 원자탄의 비밀을 불란서 정부에 알려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이젠하워는 그에게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길가봐 두려워서 그 비밀을 알려 주지 않고 불란서에 있는 미군의 원자탄 기지를 끝내 영국으로 옮겨 가야만 하지 않았던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속은 서로 물어 뜯고 있는 승냥이 관계—이것이 바로 제국주의 국가들의 《동맹》이며 《단결》인 것이다. 그러나 쏘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리해 관계의 공통성, 사상과 사회 제도의 공통성으로부터 출발하여 호상 원조하고 있으며 굳게 단합되여 있다. 이 나라들은 완전한 평등, 령토 완정과 국가적 자주성과 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 립각하여 호상 관계를 수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단결과 통일은 강철 보다 더 억세다.

우리 나라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서 쏘련을 지지 옹호하며 쏘련을 중심으로 하여 단결을 강화하는 사상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들이 노래 부르고 있는 혁명 가요 중의 하나인 《쏘련 옹호가》엔 《쏘련을 사수하자!》,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피 흘려 싸운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심장의 고동 소리가 얼마나 드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이런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음으로 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반쏘》 운동이 로골화되던 1956 년에도 당의 령도 밑에 추호의 동요도 없이 쏘련을 더욱 더 지지 옹호하여 나설 수 있지 않았던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은 암담한 일제 시기에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에 거대한 영향을 주었다. 쏘베트 군대는 자기의 붉은 선혈로써 조선 인민을 일제의 기반하에서 해방시켰다. 우리 나라의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전쟁전 황금 시절과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시기에 쏘련이 우리에게 준 물질, 기술적 원조는 막대하다. 또한 쏘련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 위업을 얼마나 뜨거운 정으로 도와 주고 있는가!

쏘련을 지지 옹호하며 그를 중심으로 하여 단결하고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 이 사상은 우리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구호로 되여 왔으며 또 되고 있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영원히 쏘련과 함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향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튼튼히 들어쥐고 나아 갈 것이다.



독로강의 기념비

—독로강에 조선 사람의 힘과 기술로 대 발전소가 건설되였다—

우리 나라의 북방, 랑림 산맥으로부터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독로강의 도도한 물'줄기를 막고 대발전소가 건설되였다. 이 발전소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로 건설되였다. 과거 일본놈들은 근 10년을 두고 3차에 걸쳐 이 공사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이 웅대한 발전소 공사를 불과 3년만에 완공하였다.

우리는 유유히 흐르는 독로강과 장강을 가로 막고 선 언제, 맑고 푸른 대호수 등 우리 나라 북변에 기념비와도 같이 일떠선 독로강 발전소에 우리 당의 충실한 붉은 전사들의 고귀한 위훈이 깃들어 있음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붉은 심장으로

우리 당이 이 발전소 건설 공사에 청년들을 불렀을 때 청년들은 거대한 포부를 안고 휘황한 전망을 그리면서 앞을 다투어 달려 왔다. 그러나 건설 공사에 착수하자 난관이 닥쳐 왔다. 그들에게는 기술이 부족하였으며 경험도 없었다. 그들의 절대 다수는 발전소라군 구경조차 한 일이 없는 청년들이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들끓는 붉은 심장이 있었다.

가물매기 공사는 발전소 건설 공사의 기초이며 가장 어려운 공사의 하나이다. 이 공사에 달려 붙었던 일본놈들은 세 차례에 걸쳐 우두머리를 바꾸어가며 근 10년 동안을 고생하였으나 8만 립방의 콩크리트를 다지다가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패망하였다. 그러나 우리 당의 붉은 전사들은 이 공사를 해내고야 말았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령하 30 도의 혹한 속에서 얼음 틈 속에 뛰여 들어가 수중 굴착을 진행하였고 얼어드는 손을 비벼가며 기초 콩크리트를 다졌다.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들은 불과 5 개월 동안에 가물매기를 끝내였다. 그 무엇이 이러한 난관 극복의 힘을 주었는가! 그것은 이 청년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천신만고를 극복한 항일 빨찌산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붉은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1957년 동기 콩크리트 타입 공사 때이다. 눈보라는 사납게 휘몰아 치고 도구를 쥐기가 바쁘게 손이 쩍쩍 얼어 붙는 혹한 속에서도 그들은 일초도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려운 고비마다 15 개 성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투쟁한 김 일성 원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을 생각하며 난관을 극복해 나아갔다.

이곳 발전소 건설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1950년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최고 사령관 김 일성 원수께서 고급 군관 회의를 소집하시고 승리의 작전을 하신 유서 깊은 전적지가 있다. 위대한 승리적 작전을 계획하신 이 전적지에 대한 이야기는 건설자들로 하여금 무한한 긍지와 영예를 가지게 하였으며 그들을 영웅적 로력에로 고무하였다. 건설자들은 숯불을 지펴가면서 콩크리트 타입을 다그쳤고 교대당 150 립방으로부터 460 립방의 타입을 했다. 그리하여 하루에 1,500 립방의 콩크리트를 타입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곳 발전소 건설자들에게 큰 고무를 준 것은 두 차례에 걸친 경애하는 수령의 현지 교시였다.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는 건설자들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며 계속 혁신을 이룩하게 고무하였으며 발전소 건설 공사를 앞당기는 데 커다란 물질적 힘으로 되였다. 발전소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현지 교시 실천을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았다.

트레스트 민청에서는 《방수로 공사를 우기 전에 끝냄으로써 수령의 교시를 실천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성자 회의를 열었다. 방수로에는 3,000 립방의 버력이 쌓였는 데 이것을 우기 전으로 치워야 했다. 제대 군인 리 양원 동무는 《동무들! 이 방수로 공사야 말로 발전소 공사를 앞당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연시키는가? 하는 전략적 고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상 동지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청년들이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밀차를 혼자서 밀고 40 분이 걸리는 밀차를 10 분에 달리게 합시다.》 하고 제기하였다. 그들은 《리 수복 영웅 돌격대》를 조직하여 일인 일차 운동을 전개하였는바 교대당 80 대로부터 480 대를 운반하였다. 돌격대원들과 청년들은 불과 25일 동안에 3천 립방의 버력을 운반하여 방수로 공사를 홍수기 전에 끝냈다. 대언제 공사는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지막 가배수로 공사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이 닥쳐 왔다. 18 인치관으로 초당 4 톤의 물이 역수로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수분전으로 다져 놓은 콩크리트는 불과 4 메터 밖에 안되여 이것으로써는 500 톤의 수압 밖에 막아낼 수 없는 데 언제 우에 고인 수압은 700 톤이나 되였다. 만약 가배수로가 터진다면 지금까지 들인 로력은 수포로 돌아 가는 것이다. 이때 말 없이 서 있던 로동당원 황 상영 동무는 역수로 쏟아져 나오는 물'길을 가로며 가배수로도 달려 들어 갔다. 송 봉화, 김 진렬 동무를 비롯한 로동당원들과 수많은 민청원들이 그의 뒤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역수로 퍼붓는 물'발 속에서 눈을 감은 채 손짐작으로 콩크리트를 다졌다.

이러한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가배수로는 위험으로부터 구원되였고 수천년을 두고 흐르던 독로강의 마지막 숨통을 막아낼 수 있었다.

위대한 대학

독로강 발전소 건설을 축하하면서 자랑하는 또 하나의 성과는 이 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수많은 기술 인재가 양성된 사실이다. 발전소 건설장은 실로 청년들의 위대한 대학이였다.

독로강 발전소의 건설은 발전소 간부와 기능공을 양성하며 경험을 얻는 공업 대학과 같으니 전체 동무들은 배우는 데 열중하라고 하신 수상 동지의 간곡한 현지 교시는 전체 청년들을 기술 습득을 위한 행군에로 고무하였다.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며 무기능공은 기능공으로, 기능공은 다기능공으로!》라는 구호를 들고 기술 습득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5 개의 기능자 학교에 266 명의 청년들이 망라되였고 150 명의 청년들이 야간 전문 학교에서 공부하였다. 건설자들은 당면한 난공사의 기술적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꾸준하게 학습하고 체득한 지식을 곧 실천에 옮겼다. 《쌍둥이 가소링까 운전공》이라고 불리우는 김 연순, 리 강순 동무들은 3 일만에 가소링까 운전을 배웠으며 10 명의 훌륭한 운전공까지 양성하였다. 건축 사업소 민청 단체에서는 불과 5~6 명의 착암공을 가지고 교대전에 2 시간 기술 학습을 하고 2 시간은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기술을 습득하여 43 명의 착암공을 양성하였다. 선별 직장 강 순월 동무와 김 정숙 동무는 《미루 다기대 운동》을 전개하여 한 사람이 한 대 밖에 돌리지 못하던 미루를 세 대를 돌리고도 콤베야까지 맡아 보게 되였다. 이 운동을 통하여 그들은 하루에 32 명의 기술 로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혼합 직장 민청원들도 이 운동에 망라되였는 데 골재 계량기 운전공들과 미끼샤 운전공들은 하루에 17 명의 로력을 절약했다. 보조 사업소 민청원들은 다기대 운동을 통하여 청년들의 평균 기능 급수를 5. 4 급으로 높이였으며 127 명의 청년들이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소유하게 되였다.

우리에게 이 발전소 건설자들의 로력적 위훈을 들려준 수리소 민청 위원장 조 정국 동무는 자기 자랑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뒤에 안 일이지만 그들은 초기에 2 명의 선반공으로부터 46 명의 대부대로 자랐으며 22 대의 선반을 새끼쳐서 각종 기계 설비를 완전히 구비한 대공장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지금 어떤 발전소 건설이라도 능히 자체로 담당 수행할 수 있게 되였다. 이 건설 공사 과정에서 실로 58 명의 기사, 기수와 1,713 명의 기능공과 133 건의 창의 고안자들이 배출되였다. 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청년들은 더욱 자기들의 사상 의지를 굳건히 하였으며 당적 사상 체계를 확고히 하였다. 발전소 건설 공사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많은 청년들이 영예로운 로동당원이 되였으며 121 명의 민청원들은 중앙 민청 모범 맹원의 영예를 받았고 200 명의 청년들이 도 민청의 표창을 받았다. 독로강 발전소 건설 공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청년들은 다시 한번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보여 주었으며 자기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과시하였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며 그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 나라 청년들이 이 발전소 건설에서 세운 위훈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본사 기자 강 영 수





지금으로부터 30년전 1929년 11월 3일에 광주 학생 청년들은 《조선 독립 만세!》, 《일제를 타도하라!》, 《식민지 교육 제도를 철폐하라!》는 등의 구호를 높이 웨치며 열화같이 들끓는 기세로 반일 시위를 단행하였다.

광주 학생들은 공산주의적 청년 학생들의 지도하에 일제히 동맹 휴학을 단행하였으며 손에 곤봉을 들고 도처에서 일본인 학생들을 습격하였고 일제의 어용 신문 《광주 일보》사를 포위하여 공장 기재들을 파괴하였다. 거리에서는 학생들의 반일 선동 연설이 군중들을 격동시켰다.

광주 학생들의 반일 운동이 발발하게 된 직접적 동기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조선인 녀학생들에 대한 일본인 중학생들의 민족적 멸시로부터 오는 치욕적 모욕이 원인으로 된 조선인 중학생과 일본인 중학생 간의 충돌 사건이였다. 사건이 발생하자 일제 경찰은 일방적으로 조선인 학생만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고 구금하였으며 또한 일제의 어용 신문이였던 《광주 일보》는 사실을 외곡하여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모욕적 기사를 보도하였다. 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인 경찰의 횡포한 박해와 일제놈들의 민족적 차별에 더욱더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놈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11월 3일 일대 시위를 단행한 것이다.

광주 학생들의 혁명적 반일 진출에 놀랜 일제놈들은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발광적인 검거와 탄압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항거하여 나선 혁명적인 학생 군중들은 굴함이 없이 과감하게 투쟁을 계속하였으며 11월 11일에는 1,000 여 명이 참가한 제 2차 시위 투쟁을 전개하였다.

광주에서 폭발된 학생들의 반일 투쟁의 불'길은 곧 전국 각지에 파급되여 서울, 평양, 개성, 신의주, 부산, 대구, 함흥, 정주, 진주, 청주를 비롯한 기타 도시들과 농촌에 파급되여 전국 방방 곡곡에서 학생 청년들의 용감한 반일 투쟁으로 벌러졌다.

궐기한 학생들은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적 청년 학생들의 지도하에 일본 제국주의 타도, 조선의 독립, 일제 식민지 노예 교육의 철폐, 일제의 민족 차별 정책 페지,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피검거자 즉시 석방, 출학 및 정학 처분의 취소, 일본인 교원의 배척 등등을 요구하여 일제의 혹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6 개월간에 걸쳐 실로 거대한 힘을 가지고 투쟁하였다. 당시 일제놈들이 발표한 통계에만 의하더라도 1929년 11월~1930년 4월간 이 학생 운동에 전국의 194 개소의 학교들에서 5만 8,000 여 명의 애국적 학생들이 참가하였던 것이다.

반년 동안이나 전개된 이 전국적인 학생들의 반일 운동은 각지 로동자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았으며 동북 간도 일대의 조선인 학생들의 지지와 중국 및 일본의 진보적 학생들의 국제주의적 지원도 받았다.

광주 학생 운동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궐기한 학생들의 혁명적 기개를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우리 나라 학생 운동이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걸쳐서 대중적 성격을 띤 정치 투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광주 학생 운동은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새로운 앙양에 들어선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의 로동자, 농민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 났으며, 일제와 그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제도 및 민족적 차별 정책을 반대한 조선 청년 학생들의 대규모적인 반제 혁명 투쟁이였다.

일제는 1910년에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조선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조선 인민을 영원히 자기들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악랄한 우민 동화(愚民同化)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조선 인민의 모국어 사용마저 금지하였으며 온갖 야만적 방법으로 조선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과 찬란한 문화적 전통을 말살하기에 광분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 정책으로 조선 인구의 약 80%는 문맹 상태에 놓여 있게 되였다. 특히 근로자들의 자제는 대부분이 취학조차 할 수 없었다. 각급 학교들의 취학 대상자들 중 극소수만이 겨우 취학할 수 있었으나 그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생활난으로 퇴학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20년대의 일제 통계에 의하더라도 소학교 입학자들 중에서 졸업한 수는 40%에 불과하며 나머지 60% 이상은 중도 퇴학하였다. 일제는 글을 가르치는 교단에까지도 칼을 차고 등단하는 등 각종 위협과 공갈의 수단을 다하여 식민지 노예 교육을 강요하였고 학원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광분하였다.

이와 같이 참된 배움의 자유를 잃은 조선 청년 학생들의 일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과 민족적 차별에 대한 증오와 격분은 격화되였고 청년 학생들의 반일 운동은 날로 장성하였다. 특히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급속히 앙양되는 로동 운동에 고무되면서 반일 학생 투쟁은 더욱 장성 강화하게 되였다.

일제의 파쑈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속에서는 비밀리에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학습하기 위한 독서회가 많이 조직되였으며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매년 수십 건의 동맹 휴학들이 일어났다. 일제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29년 1년 동안에 동맹 휴학은 78 건에 달하였다. 청년 학생들의 이러한 반일 기세는 드디여 광주 학생 운동을 폭발시켰으며 그것은 전국적인 반일 학생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주 학생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 강점자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실패되고 말았다. 운동이 실패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혁명 운동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는 혁명적 당이 없었다는 것이다.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은 종파 분자의 파쟁과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1928년 조직된 력량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였다. 종파 분자들은 로동 운동을 말아 먹고 당을 파괴한 자기들의 죄과를 뉘우칠 대신 계속 자기들의 추악한 목적을 위하여 종파 활동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당시 일제와 야합한 민족 개량주의자들은 학생들의 투쟁에 랭담한 태도를 취하였고 심지어 반대까지 하였다.

조선의 청년 학생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1930년대에 들어 와서 자기 력사상 처음으로 김 일성 원수를 선두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를 받게 되였다.

우리의 청년 학생들은 김 일성 원수가 령도하는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청년 학생들의 빛나는 미래가 도래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항일 무장 투쟁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반일 투쟁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리하여 선진적인 청년 학생들은 직접 손에 무장을 들고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김 일성 원수가 령도하는 항일 무장 투쟁에 참가하였다. 국내의 청년 학생들도 김 일성 원수 령도하의 항일 무장 투쟁에 고무되여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였다.

일제 놈들의 비밀 문건에서 몇가지 례를 들어 보아도 부산 초량 상업 학교 졸업생들은 김 일성 원수가 령도하는 무장 투쟁에 호응하여 무장 봉기를 감행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전주 사범 학교 학생들도 김 일성 원수를 민족 해방의 위대한 령도자로 흠모하면서 조선 독립의 실현을 위하여 항일 빨찌산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멀리는 일본 가나가와에서 까지도 1945년 3월에 김 일성 원수 령도하의 항일 유격 부대와 련락하여 조선 독립을 기도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 청년 학생들이 념원하고 그를 위하여 싸워온 그 모든 것은 8. 15 해방 후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의 령도하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실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1958년부터는 아세아에서 처음으로 되는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가까운 년간에 기술 의무 교육제를 실시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금번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6차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조치로 되는 인민 교육 체계를 개편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민주 학원에서 배우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은 학용품은 물론 의복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공급받고 또 장학금까지 받고 있다. 교문을 나서는 청년 학생들에게는 사회주의 조국의 주인다운 역군으로서 일할 수 있는 보람차고 희망에 넘치는 앞날이 약속되고 있다. 우리의 청년 학생들은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이 베풀어 준 이 크나큰 행복과 배려가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혁명·선렬들의 간고한 투쟁의 고귀한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 학생들은 일제 시대 이상의 무권리와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식민지 노예 교육과 몽매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120 여 만의 미취학 아동들과 고아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성년중 문맹자는 70~80%에 달하고 있다. 많은 학교는 미제의 병영으로 빼앗기고 많은 학생들은 과중한 공납금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 나오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배는 학교를 미제의 대포'밥 조달의 군사 훈련장으로 만들고 있으며 우수한 민족 문화를 말살하고 썩어 빠진 양키 문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와 특히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6차 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고무되면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와 노예 교육을 반대하고 학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더욱 더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구원하는 길은 오직 미제를 남조선에서 물러가게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있다.

오늘 광주 학생 운동 30 주년을 맞는 공화국 북반부 청년 학생들은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뭉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할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김 희 일



수상님의 교시대로 살며 일하는 청년들

김 일성 수상께서 황해 제철소를 현지 지도하신 때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이곳을 친히 찾으신 수상 동지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그에 역량을 집중시켜 선철은 매일 평균 650 톤, 강철은 700 톤 수준으로 정상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는 식으로 700 톤, 800 톤으로 올라 가도록 해야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제철소 민청 단체는 수상 동지의 교시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지난 9월 9일, 김 일성 수상의 현지 교시 실천을 위한 청년 궐기 대회가 열리였다. 대회에 모인 5,000 여 명의 청년들은 생산에서 파동성을 극복하여 제강에서는 매일 700 톤, 제선에서는 650 톤, 조강에서는 400 톤 수준을 정상화하며 계속하여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줄기차게 전진할 것을 일치하게 결의하여 나섰다.

—어떤 일이 있드라도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실천해야 한다.— 오직 이 한마음으로 하여 이들의 심장은 들끓었다.

수상 동지의 현지 교시 내용을 심오한 학습을 통하여 체득한 이곳 청년들은 더욱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철 증산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여!

제철소의 모든 력량은 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데로 돌려졌다. 용해공, 평로공, 수리공 할것 없이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여 한 톤이라도 더 많은 쇠'물을 끓여 내려고 들끓었다. 허지만 이런 열의만으로는 갑자기 700~800 톤의 철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였다.

청년들은 우선 모든 력량을 자신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데 돌리였고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였다. 더구나 무기능공 청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에서 개별적 청년들에 대한 기술 기능 전습 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안되였다. 평로공들 속에서는 기능 전습을 위한 개별 담당제가 실시되였다. 기능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기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고 힘쓰고 있으며 기능이 낮은 축들에서는 하루속히 따라 잡으려고 애쓰고 있다. 기중기 운전공인 김 주태 동무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바쁜 통에 언제 일일이 대여 주면서 일하겠는가?…그럴바 하구는 내손으로 다 해치우고 말지!》하면서 전습공에 대한 기능 전습을 시끄럽게 여겨왔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 점검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체 작업에 전습공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친절히 대여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능히 혼자서 기대를 다룰 수 있는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였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한건의 운전 사고도 내지 않고 쇠'물을 조괴장에 보낼 수 있었다.

평로공들 속에서는 모든 일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습성이 붙게 되였다. 이들은 로의 성능과 수명을 구체적으로 료해 타산하고 어떤 로의 보수는 앞당기고 어떤 로는 용착제도를 강화하여 보수 예정 기일을 연기하는 등으로 보수 기일을 조절하여 그것이 중첩되는 폐단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오 구레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로내 정압력 보장과 층차식 장입 방법 등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제강 시간을 종전의 15 시간으로부터 12 시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 고무된 제철소내 로동자들과 청년들의 지혜와 창발성은 모든 고리 마다에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는 데로 돌려 졌다.

제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라 진초 동무는 선철에 포함되여 있는 규소량을 저하만 시킨다면 평로에서의 출강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그의 의견은 기술자들의 지지를 받아 곧 실험에 옮겨졌다. 그의 정력적인 노력으로 드디여 선철 중에 함유되여 있는 규소를 0.9~0.2%로 저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밖에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 제강 직장에서만도 매달 진행되는 평로의 연도 소제를 계기로 기중기 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실로 46 건의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엄격한 제도, 강철 같은 규률

전체 로동자, 사무원들이 명령과 지시를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지 않고서는 생산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각자가 자기 맡은 부문의 일을 다 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신 수상 동지의 교시는 청년들의 생활의 지침으로 되였다.

평로공들이 제대로 쇠'물을 끓여 노아도 조괴장에서 제때에 받아 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노릇이 였다. 그런데 조괴장에선 한두 시간씩 늦게야 쇠'물을 받지 않으면 강괴 형(케스)을 되는 대로 마련해 논 데로부터 많은 강철을 허양 버리는 생산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런데도 조괴공들은 고열 작업이니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만 여겨왔던 것이다.

허지만 모두가 강철 증산을 위하여 한덩어리가 되여 들끓고 있는 이때 이들이 뒤떨어져 있을 수는 없었다. 조괴장 청년들은 각자가 자기 맡은 부문의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기풍을 수립할 것을 다지고 나섰다. 그러나 시초엔 일부 청년들이 견디기 어려운 고비에서는 역시 그전과 매한가지로 무책임하게 일을 해치웠다.

민청원들은 이 문제를 총회에서 토론하였다. 모임에서는 빨리 밖으로 뛰여 나올 것만 생각하느라고 깨여진 벽돌로 되는대로 쌓아 올려 여러 톤의 쇠'물을 버리게 한 정반공 손 준식 동무의 무책임한 작업 태도에 대해서 비판되였다.

《…15 여 성상이나 그 모진 고통과 애로를 이겨낸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민청원들이 순간적인 정반 작업도 참기 어렵다고 되는 대로 해치우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여서는 안되겠다》고 말하면서 한 상구 동무는 반드시 일을 해놓은 다음에는 한번 더 살펴 보고 나오는 습성을 기르자고 제의하였다. 모두가 이 의견을 지지하였다. 이제는 열이 식어질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정반 작업을 하는 일마저 없어졌다. 한 상구 동무를 비롯한 많은 청년들은 출강이 끝나기가 바쁘게 다시 뛰여 들어 제몫의 일을 빈틈없이 해놓은 다음에도 채 쌓지 못한 동무들의 일까지 도와 주고 있다. 이들 속에서는 생산 사고와의 강한 투쟁이 벌려지게 되였고 불과 한 달 남짓한 어간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700 톤에서 800 톤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궐기한 청년들은 수상 동지의 교시 대로 지난 9월에는 650 톤의 선철 생산을 정상화하였고 700 톤의 새로운 고지를 향하여 전진하게 되였다. 또한 강철 일산 700 톤을 정상화시킨 제강 직장에서도 10월에 들어 와 800 톤을 정상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렇듯 당과 수령 앞에 다진 맹세를 어김없이 실천하는 이들은 이미 거둔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1,211 고지를 지켜낸 용사들의 심정으로 새로운 고지를 향하여 계속 앞으로 내닫고 있다.

본사 기자 윤 세웅



조선 로동당 (9)

조선 로동당과 민청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체계에 있어서 당과 대중 단체

로동 계급이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서 영원히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자본가 계급의 주권을 전복하고 로동 계급의 주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로동 계급이 주권을 전취하였다고 하여서 사회주의가 저절로 건설되는 것은 아니다.

주권을 전취한 후에 로동 계급은 자기의 주권을 유지 공고화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혁명적 과업들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로 혁명에 의하여 꺼꾸러진 착취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며 부르죠아 국가들의 침공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모든 나라 로동 계급과의 형제적 련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로동 계급이 모든 근로 대중들, 우선 농민을 자기 주위에 결속하여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인입하여야 한다. 세째로는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며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업들은 지극히 복잡하고 간고한 과업이며 그의 수행은 첨예한 계급 투쟁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이 혁명적 과업의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에게 강력한 국가 주권이 요구된다. 맑스—레닌주의는 그러한 주권은 오직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여러 조직체들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 조직체들 가운데는 지도적 역할을 하는 로동 계급의 당과,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의 역할을 하는 근로자들의 대중 단체들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은 조직체들을 총체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체계라고 한다.

우리 나라 대중 단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인민 회의, 직업 동맹, 협동 조합, 민주 청년 동맹 등이다. 인민 회의는 국가적 방면에서 조선 로동당과 광범한 인민 대중을 련결시키는 조직체이며, 직업 동맹은 당과 광범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생산적 방면에서 련결시키며, 협동 조합은 당과 근로 농민을 비롯한 협동 경리에 망라된 근로자들을 주로 경제적 방면에서 련결시킨다.

민주 청년 동맹은 당과 청년 대중과의 련계를 실현하는 인전대로서 광범한 청년들 속에 당의 영향을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 주위에 집결시키고 당 정책 실행에로 조직 동원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즉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청년 동맹을 통하여 또 그의 도움을 받아서 청년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로 적극 조직 동원하며 동시에 그들 속에서 젊은 간부들을 양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조직체들은 각각 자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두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여러 조직체들에게 유일한 목적과 옳은 방향을 정해 주며 그들이 옳게 사업해 나가도록 하는 령도적 역할은 누가 해야 하는가? 이러한 조직체들을 령도할 사명은 바로 로동 계급의 당이 수행한다. 즉 당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체계에 있어서 모든 조직체들을 지도하는 향도력이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당은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 로동당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체계에 있어서 당은 지도적 력량이며 근로자들의 대중 단체들은 당과 근로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다. 대중 단체들은 오직 당의 령도를 받는 조건하에서만 자기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국제적으로 나타난 수정주의를 우리 나라에 밀수입해다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거부하여 나섰다. 서 휘는 《직업 동맹은 당보다 더 많은 맹원을 망라하고 있으므로 그 권위는 더 크다》고 하면서 직업 동맹을 당 우에 올려 세우려고 하였으며 김 두봉은 당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를 대치시키면서 국가 기관인 상임 위원회를 당 우에 올려 세우려고 하였다. 반당 종파 분자들이 대중 단체에 대한 당의 지도를 거부한 목적은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하에 쟁취한 제반 성과들을 부인하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을 손상시키는 동시에 견실한 우리 당의 령도적 핵심을 파괴하고 자기들의 추악한 《헤게모니야》를 쟁취하려는 야욕을 실현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나 놈들의 모든 흉책은 우리 당에 의하여 철저히 분쇄되였다.

민청은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이며 방조자이다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체계에 있어서 민청의 위치는 당과 청년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라는 데서 표현되며 민청의 역할은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라는 데서 표현된다. 그러면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청을 당의 방조자 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당의 모든 정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민청이 당을 적극 방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로동당의 정책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혁명 수행의 구체적 방도이다. 당 정책에는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념원과 리해 관계가 체현되여 있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생활적 기초이다. 때문에 민청은 당 정책의 실천을 자기의 기본 임무로 삼고 있다.

민청을 당의 방조자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로 청년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당을 적극 방조함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와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을 위하여서는 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준비도 갖추워야 한다. 그런데 청년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할 뿐만 아니라 그 락원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당은 근로자들과 특히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할 것을 교시하고 있는바 민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있어서 당을 적극 방조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민청을 당의 후비대 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을 교양 훈련하여 준비된 선진 근로 청년들로써 당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며 국가 사회 활동의 모든 분야에 필요한 일'군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원의 후보자는 민청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청을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청은 당원의 후비를 양성하는 학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시였다.

조선 로동당에 입당하는 당원의 대부분은 민청 생활을 거친 사람이며 앞으로는 누구나 다 일정한 기간 민청 생활을 거쳐서 당에 들어 가게 된다. 민청에는 민청원으로서 입당하는 청년에 대한 입당 보증을 할 권한이 위임되여 있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이 당원 후비 양성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곧 당을 강화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민청의 임무는 청년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을 더 잘 함으로써 당성이 강한 훌륭한 당원이 될 수 있는 후비를 육성하여 당 대렬을 부단히 보충하는 데 있다. 민청은 우수한 선진 근로 청년들로써 당 대렬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젊은 간부들을 육성하여 당 및 국가 기관의 간부를 보충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민청은 창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의 매 시기에 제시되는 당 정책을 적극 지지 옹호하고 그의 관철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에 민청은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과 혁명적 민주 기지의 창설 강화를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군사 각 방면에 걸친 당 정책 실천에 청년들을 적극 조직 동원하였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민청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전선과 후방에서 청년들을 원쑤 격멸을 위한 영웅적 투

생에로 고무하여 불멸의 위훈을 세우게 하였다. 전후 시기에 민청은 인민 경제의 복구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영웅적 로력 투쟁에로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여 선진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청이 당의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직하게 수행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민청은 또한 각계 각층 청년들을 자기 대렬에 단결시키고 로동과 학습과 투쟁을 통하여 훌륭한 일'군들을 수많이 육성하였다. 그리하여 당, 국가 기관, 사회 기관 각 부문에 우수한 일'군들을 많이 보내였으며 수십만의 민청원들을 당 대렬에 보냈다. 이것은 민청이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의 역할을 충직하게 수행하였음을 말하여 준다.

조선 로동당은 민청의 창건자이다

민청의 창건과 발전 및 그의 모든 성과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이름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민청은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창건되였으며 그의 현명한 령도하에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 왔다.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우리 나라의 정치 정세와 혁명 임무로 출발하여 청년 운동의 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었다. 즉 김 일성 동지는 해방 직후 각지에 조직되였던 공청을 비롯한 여러 청년 학생 단체들을 통합하여 유일한 대중적 청년 단체로서 민청을 조직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 로선은 해방 직후 조국에 조성된 정치 정세와 혁명 임무에서 볼 때나, 해방 직후의 우리 나라 청년 운동의 형편에서 볼 때 가장 정당한 로선이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은 우리 인민 앞에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감행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은 복잡하고 간고하게 되었다. 우리 혁명 앞에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 세력과 그 앞잡이인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여야 할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이 나섰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간고하고 복잡한 혁명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여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단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여기로부터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할 로선과 함께 통일 전선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혁명 과업은 필연적으로 청년 운동 앞에 근로 청년을 핵심으로 각계 각층 청년들을 단결시킬 임무를 제기하였다. 즉 우리 나라 청년 운동에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구현하여 각계 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성격의 청년 단체를 창건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청의 창건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과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정당하고 현명한 대책이였다.

한편 해방 직후 우리 나라 각지에는 공청을 비롯하여 각종 명칭을 띤 청년 학생 단체들이 조직되였는데 이 청년 학생 단체들은 통일적 지도를 받지 못하였고 분산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청년들의 애국적 력량을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에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형편에서 우익 반동 정당과 민족 반역자들은 자기의 반동적 본질을 은폐하면서 청년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 당기기 위하여 반동 청년 단체의 조직을 흉책하였다.

이와 같은 정형들은 각종 청년 학생 단체들을 통합하여 유일한 대중적, 민주주의적 청년 단체로서 민청을 조직하는 것이 조선 청년 운동의 가장 정당한 로선이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그러나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가 민청을 창건할 데 대한 정당한 로선을 제시하였을 당시 종파 분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그의 실현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오 기섭, 주 녕하, 정 달헌, 리 주하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은 공청을 해산하고 민청을 조직하는 것을 《청년 운동의 퇴보》니 《우경》이니 하면서 당을 비난하였고 남조선에서는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이 민청 창건에 대한 당의 정당한 로선을 반대하여 나섰다. 이자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청년들을 분렬시키여 자기들의 추악한 종파적 목적에 청년 운동을 리용하려고 흉책하였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의 모든 책동은 우리 당에 의하여 결정적 타격을 받았으며 전국 청년들은 민청 창건에 대한 당의 방침을 열렬히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직접적 지도하에 1946년 1월 17일에 민청이 창건되였다.

민청의 창건은 조선 청년 운동 력사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를 받는 통일적인 대중적 청년 단체가 탄생되였기 때문이다. 민청이 창건된 후 오늘까지의 력사는 유일한 대중적 청년 단체로서 민청을 창건한 우리 당의 로선이 가장 정당하였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도 정당한 로선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당의 지도는 민청의 힘의 원천이다

민청은 창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의 원쑤들과의 가혹한 투쟁 속에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언제나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로서의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민청은 오늘 180 여 만의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 부대로 장성 발전하였으며 당이 주는 어떤 위임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지게 되였다.

그러면 무엇이 민청의 빛나는 성과를 보장하였는가? 그것은 당의 지도이다. 당의 지도는 민청의 힘의 원천이며 모든 성과의 튼튼한 담보로 되였으며 또 되고 있다. 당은 민청에 정치, 사상, 조직상 각 방면에서 육친적 지도를 주고 있다.

당은 민청을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이 민청을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함은 민청의 투쟁 목표와 그 임무를 규정하여 주며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여 그 정책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함을 의미한다. 당 대회 및 당 중앙 위원회의 제 결정들, 그리고 김 일성 동지의 제 교시들에는 민청의 투쟁 목표와 임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여 있으며 매 시기의 당 정책에는 민청 활동의 지도적 지침이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민청에게 있어서 당 정책과 김 일성 동지의 제 교시는 전투적 강령이며 민청 사업의 기본 내용으로 되고 있다. 지난 기간 민청이 달성한 모든 성과들은 례외 없이 당 정책에 충실하였으며 그것을 자기의 투쟁 강령으로 삼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이다. 이것은 앞으로도 민청의 모든 사업 성과가 오직 당 정책에 충직하며 그의 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일체 력량을 동원하는 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당은 민청을 사상적으로 지도한다. 당이 민청을 사상적으로 지도한다 함은 당이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민청의 지도적 사상으로 규정해 주었고 이 사상으로 청년 대중을 교양하도록 각 방면의 배려와 지도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은 민청에게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부단히 가르쳐 주고 있으며 민청 일'군들과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각종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각종 교양망과 청소년 출판물 발행에 대한 지도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해 주고 있다.

조직적 지도 방면에서 본다면 민청 중앙 위원회는 직접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지방 민청 단체들은 민청 중앙 위원회에 복종하면서 동시에 지방 당 단체의 일상적인 지도 통제하에서 자기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민청 지도 기관 내에는 로동당원들이 파견되여 당의 지도 밑에 자기 사업을 수행한다.

당은 민청을 지도함에 있어서 항상 창발성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민청이 옳은 길을 걷도록 인도하고 있다. 당은 민청 대렬을 전투적 부대로 결속시키며 청년들 속에서의 정치 조직 사업의 방향과 방법들을 가르치며 민청 일'군들로 하여금 당의 군중 로선에 철저히 립각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민청에 대한 당의 이러한 지도는 민청 사업에 관한 당의 제 결정들과 민청 사업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여러 연설들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여 있다.

당의 지도 속에 민청의 힘과 공고성의 원천이 있다는 것은 청년 운동에 해독을 끼친 반당 종파 분자들과의 투쟁이 잘 말하여 준다. 민청의 창건 시기와 그 이후 시기에 각종 반당 종파 분자들은 청년 운동을 분렬시키여 자기의 종파적 목적에 리용하려 하였으며 청년들 속에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침습시켜 그들의 사상 체계를 흐리게 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반당 종파 분자들의 모든 책동은 우리 당에 의하여 적발 분쇄되였다. 반당 종파 분자들은 그 어떤 기만 술책으로도 당에 대한 민청의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없었으며 민청을 그의 어머니인 당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었다.

민청의 전 력사는 당의 지도하에서만 민청은 창건될 수 있었으며 자기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며 내외의 온갖 원쑤들의 음모 책동을 분쇄하고 자기 대렬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민청 단체들과 청년들은 앞으로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그가 인도하는 혁명의 길로 확고하게 전진하며 당의 방조자이며 후비대로서의 영예로운 임무를 빛나게 완수할 것이다.

어느 한 일요일에



26 호실 처녀들은…

맑게 개인 가을 어느 일요일, 우리는 평양 견방직 공장 합숙을 찾아 갔다. 우리는 경쾌한 노래 소리가 들려 오는 4 현관 4층 26호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침 시전에 깨끗이 청소를 끌마친 방안 한 쪽에는 이불과 담'요들이 보기 좋게 정돈되여 있고 책상 우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창문'가의 화분에 빨간 꽃이 피여 있었다. 깨끗하고 문화적으로 꾸려진 이 방안만 보아도 매우 유쾌하였다.

《이 호실 동무들은 오늘 일요일의 문화 휴식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하고 우리는 실장 김 옥란 동무에게 물었다. 실장 김 옥란 동무는 창'가의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동무를 가리키며 《저 동무는 직포의 능수 리 인복 동무인데 노래도 좋아 하거니와 무용도 매우 즐긴답니다. 지금 공장 구락부에 무용 련습을 가려는 참이예요. 그리고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김 영실 동무는 가야금을 타려 벌써 구락부로 떠났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김 옥란 동무는 오늘 휴식일에 《나는 다시 강을 건너 간다》라는 소설을 다 읽을 계획이라 하였다. 그는 이달에만 하여도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당을 따른 어린 투사들》, 《금별 영웅》 등을 비롯한 수많은 책들을 읽었다 한다.

그외 몇 동무들은 이미 《전승 기념관》과 《공업 및 농업 전람관》에 견학 갔고 림 정국 동무는 체육절 경기 련습을 위해 경기장으로 떠났다고 한다. 그는 체육 선수는 아니지만 달리기 운동에 큰 취미를 가지고 있으며 리레 선수라는 것이다. 그리고 박 춘자 동무는 오전중에 빨래를 끌마치고 오후에는 영화 관람을 갈 계획이라 한다.

26호실 민청원들은 위생 문화 사업도 잘하거니와 자기의 흥미와 소질에 따라 하루의 휴식일을 유쾌하고 명랑하게 보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들은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참가자들이며 매달 자기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있는 동무들이였다.

호실을 나오면서 우리와 동행한 직포 청년 직장 제 6분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은 《우리는 위생 문화 사업을 강화하며 또한 민청원들의 요구와 정서에 알맞게 일요일 문화 휴식을 광범한 민청원들과 토의하여 흥미 있게 조직하고 있습니다. 각종 관람 조직과 야유회, 감상회 등을 조직하며 문화 예술 체육 활동도 조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30 호실의 총각들은…

우리는 전승동에 있는 서구역 트레스트 합숙으로 찾아 갔다. 우리는 그곳 청년들의 위생 문화 사업과 일요일 휴식 생활을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거기로 갔던 것이다. 합숙에 들어 서니 2~3 명의 청년이 멍하니 바깥만 바라 보고 있었다.

2 층 30 호실의 마루'바닥은 먼지가 뽀얗고 지저분하다. 책상 우에는 휴지와 담배 꽁초들이 지저분히 널려져 있고 한켠 구석에 놓인 바게쯔에는 며칠 전에 걸레를 빤 더러운 물이 담기여 있었다. 창문에 걸린 좋은 분홍색 카텐엔 먼지가 뽀얗게 앉았고 무질서하게 나딩굴고 있는 신들 가운데는 새 축구화도 보였다. 때가 까맣게 오른 내의를 입은 한 청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나 선수가 아니라서 요즘은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그는 축구에 흥미는 있으나 본 선수가 아니여서 몇 달 전에 사은 축구화를 그냥 묵이고 있다고 말하였다. 알고보니 그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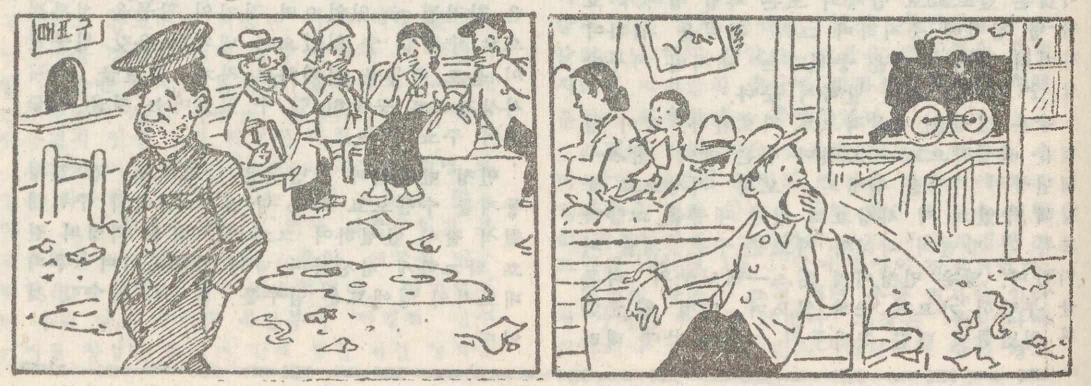
이번 휴식일에만 이렇게 심심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였다. 한 청년은 대낮에 술을 먹고 와서 식당 식모와 싸움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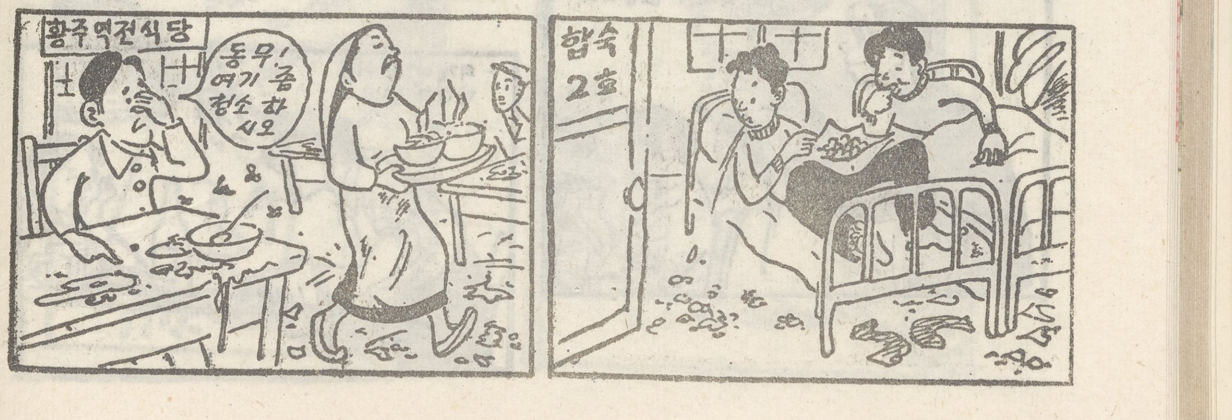
우리는 식당에서 나오면서 서구 트레스트 제 6 분초급 민청 단체 위원인 조 거봉 동무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신네 분초급 민청 단체에서는 맹원들의 위생 문화 사업과 문화 휴식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습니까?》하고 물으니 그는 머리를 숙인 채 머리만 벅벅 긁고 있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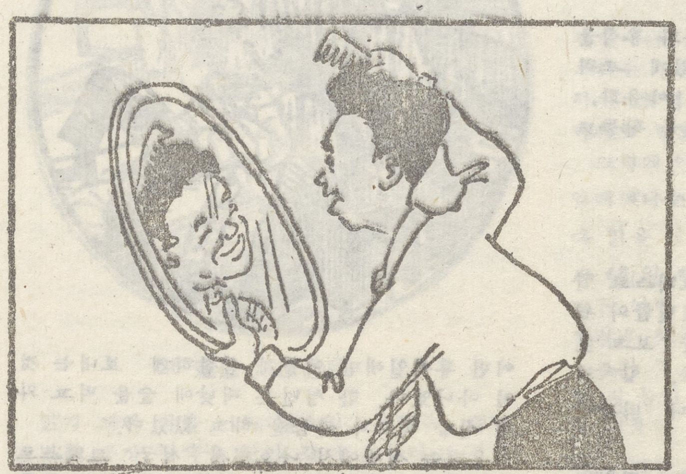
이렇듯 같은 일요일에 평양 견방직 공장 합숙 26 호실 처녀들과 서구 트레스트 합숙 30 호실 총각들은 판이한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판이한 두 사실에서 응당한 결론을 스스로 지으리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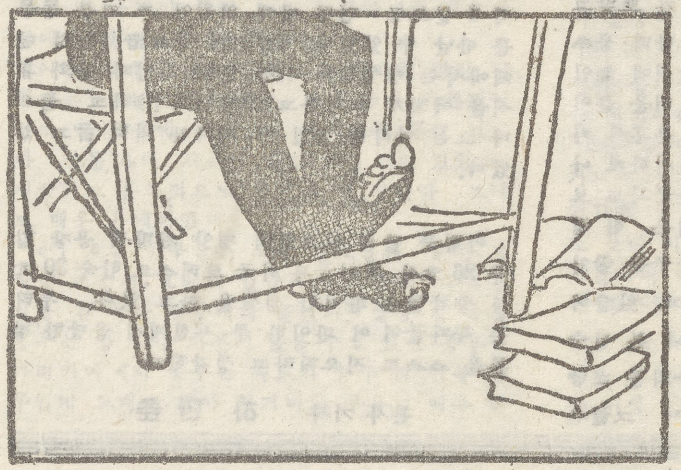
본사 기자 하 만 춘





부르죠아 사상 잔재에 포화를 퍼부으라!





(재 담)

뿌리를 뽑자

우 봉 일

-무대 뒤에서 작업 휴식 종소리-

녀 (무대에 나와 무엇인가 생각하는듯 멀리 바라 보고 섰다.)

남 (무대에 나타나며)
동무! 휴식종은 방금 났는데 어느새 벌써 여길 왔소?

녀 아야! (약간 놀라며)

남 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녀 아무 것두 생각하는 건 없어요.

남 그리 샐쭉해질 거야 있어요. 가만 있자…옳지! 그렇군요. 위대한 전망에 대하여 사색하시는 게지요.

녀 그래요. 왜?

남 암, 그렇구말구요. 우리 조국의 위대한 현실, 위대한 앞날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렁거리는 사실들…

녀 그걸 누가 몰라요?

남 그런데 때때로 우리 청년들의 집단적 힘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통탄할 일이지요. 우리 청년들의 애국적이고 집단적인 힘으로 보통이면 4~5년이 걸려야 할 200 리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가 단 75 일간에 완성된 기적적 사실이며…

녀 그거야 저도 참가했는 걸요.

남 집단적 로력의 거대한 열매—평남 청년 관개 개발이며…

녀 제 오빠가 가 있지 않아요?

남 랑림 산맥으로부터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독로강을 막고 웅장하게 건설되는 강계 청년 발전소.

녀 내 동생도 참가했어요.

남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나선 청년들, 청년 돌격대, 청년 직장, 청년 건설장들에서 모든 청년들이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 말입니다.

녀 그거야 말할게 있어요?

남 그런데 말입니다.

녀 그런데요?

남 (갑자기 배를 움켜 쥐고 돌아가면서) 아구 배야 아구!

녀 (놀라며) 동무! 배가 아파요?!

남 아구 배야 아구 아구!

녀 가 가만 계세요. 내 얼른 진료소에 가서 약을 가져다 드릴게요. (가려고 한다.)

남 가 가만 계세요. (정색한다.)

녀 아니 아프다더니 벌써 나았어요.

남 가령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꾀병을 하는 동무들이 있단 말입니다.

녀 아이구 망측해라. 그런 꾀병이야 동무나 부리겠죠.

남 동무, 그런건 남자들에게만 있는줄 아슈?

녀 그럼 그럴 녀자가 어데 있어요.

남 동무더러 하는 말은 아니지만 조합 밭은 아무렇게나 되건 말건 터밭만 쓰다듬는 동무들을 보지 못했소?

녀 그러구 보니 호주머니 큰 남자들두 더러 있던데요.

남 (자기 주머니를 살피며) 갑자기 웬 호주머니 타령이요.

녀 조합 밭에 줘야할 비료가 터밭에 고스란히 뿌려 있는게 암만해도 호주머니 자칸 같기에 하는 소리예요.

남 쉬운 일을 맡기면 얼굴이 생긋했다가 말입니다. (흉내낸다)

녀 그래서요?

남 어려운 일을 맡기면 샐쭉해지는 녀성 동무들의 얼굴은 참 볼만하지요.

녀 도급제라면 《돌격 앞으로!》 하구 와닥닥 뚝딱하다가두 그렇지만 않으면 거북 걸음하는 남자들의 마음씨는요?

남 일할 때에는 호호호, 희희희, 하하하 하면서 잡담에 시간 가는줄 모르다가두 분배 몫이 적으면 뾰루퉁해지는 처녀들의 렴치는 어떻구요.

녀 아구 망측해라.

남 그러니 집단적 로력을 싫어하는 현상은 아직 남자에게두 녀자에게두 있군요.

녀 참 그래요. 그리구 우리에겐 아직 개인 리기주의도 남아 있어요.

남 아 참. (별안간 정색해지며) 동문 아까 이렇거구 (흉내를 내면서) 뭘 생각하구 있었소?

녀 (얼굴을 숙이며) 별루 생각한게 없어요.

남 암만해도 동무에게선 아직 그놈의 병이 떨어지질 않구 있는 것 같애.

녀 뭐 뭐요?

남 그 리기주의 병 말이요.

녀 이 동무가… (샐쭉해진다)

남 동무의 그 걷잡을 수 없이 뱅뱅 맴돌이 치고 있는 머리속에 좀 들어가 보랍니까?

녀 맘대루 해요.

남 농촌 총각들과는 결혼하기가 싫어서…

녀 별 걱정이군요.

남 이 풍요한 전원을 버리려고…

녀 웬 걱정이야요.

남 개인 리기주의는 떼려야 한다구.

남 옛소! 채찍이나 하나 받아 보우 (등에 지고 온 싸리 가지를 내민다).

녀 별일 다 보겠네. (뚝 꺾는다).

남 하나를 꺾으면 둘! (또 준다).

녀 왜 이래요. (또 꺾는다).

남 그럼 다섯! (또 준다).

녀 (꺾을래다 못 꺾는다). 시끄럽게 (탁 던진다)

남 동무 그것 보시오. 하나 둘은 꺾지만 다섯만 되니 벌써 못 꺾지 않아요.

녀 (말 없다)

남 전체 청년들이 한덩어리가 돼서 천리마로 내닫고 있는데 이 억센 집단에 의거하지 않고 개인 향락을 꿈꾸면 어떻게 되겠소?

녀 (말 없다)

——무대 뒤에서 종소리——

남 자! 갑시다. 작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집단으로 돌아 갑시다.

녀 네 알았어요. 같이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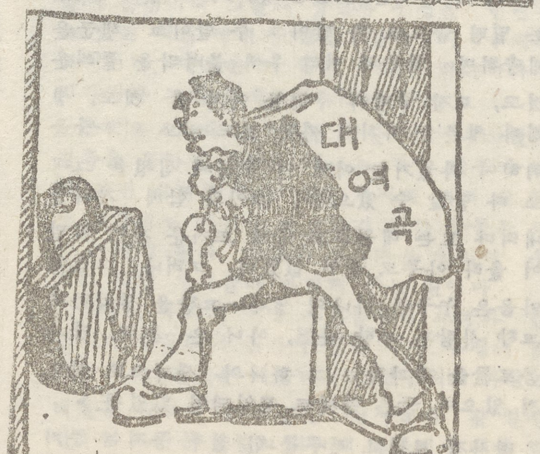
남 관중 여러분! 부르죠아 사상 잔재를 뿌리채 뽑아 버립시다.

녀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 뽑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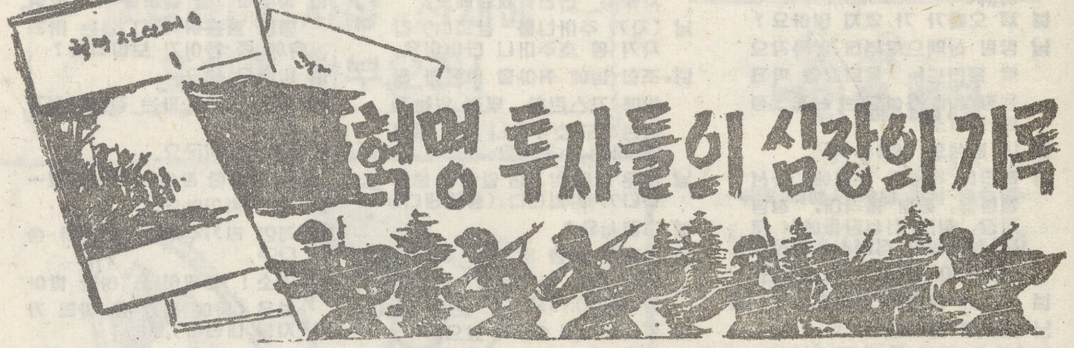








혁명 투사들의 심장의 기록



— 《혁명 전선에서》에 대하여 —

김 재 하

최근 민청 출판사에서 항일 혁명 투사들의 불멸의 투쟁 기록인 《혁명 전선에서》를 출판하였다.

《혁명 전선에서》에는 항일 빨찌산 대원으로 김 일성 원수의 친솔하에 보천보 전투에 참가한 한 천추 동지의 《불멸의 홰'불》이 처음에 수록되여 있다. 필자는 김 일성 원수의 친솔하에 조직 전개된 력사적인 보천보 전투에 대하여 심히 력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감명 깊게 서술하고 있다. 하나하나의 력사적 사실도 그러하거니와 항일 빨찌산들의 심정을 말하여 주는 부분도 역시 우리들의 감흥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운 조국, 오매에도 잊을 수 없는 조국 땅에 들어와 보천보 시내를 굽어 보던 때의 감정을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만주벌의 넓은 곳, 가도 가도 끝 없는 밀림 속으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행군을 계속하며 원쑤의 머리 우에 불벼락을 들씌운 것도, 모진 주림과 추위를 이겨 낸 것도, 생명과 청춘을 바치며 싸운 것도 바로 이 땅을 위하여 싸웠거늘 어찌 이 순간의 심정을 그대로 다 말할 수 있으랴! 그이와 함께 거리를 내려다 보는 대원들도 목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나 하나의 생각—고향을 생각하며 고향 사람과 고향 산천, 아니 온 조국 땅과 동포들을 생각하는 그 하나의 생각으로 얽혀져 있으며 굳은 맹세로 통일되여 있었다.》

력사적 보천보 전투를 한 천추 동지는 준비과정으로부터 전투 이후의 력사적 사실에 이르기까지 김 일성 원수의 탁월한 전략 전술과 그리고 항일 빨찌산들의 애국주의와 무비의 영웅성을 보여 주면서 실감 있고 감명하게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항일 혁명 투사 박 달 동지의 《나의 회상》이 수록되여 있다.

박 달 동지는 김 일성 원수를 처음 만나시던 이야기로부터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활동과 일제의 철창 속에서도 김 일성 원수가 지도한 항일 빨찌산의 승리와 조선의 독립을 확신하고 투쟁한 항일 혁명 투사들의 피어린 투쟁을 생동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간고하였으나 우리의 혁명적 열의는 높았다.》 이것은 박 달 동지가 이 글 서두에서 쓴 말씀이다. 실로 우리는 투쟁의 간고한 시기에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박 달 동지와 그의 전우들의 피어린 투쟁의 기록을 읽게 된다.

김 일성 원수를 처음 만나시여 친히 조선 혁명 수행을 위한 과업을 받던 이야기는 심히 우리의 심금을 울린다.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의 자애로운 모습, 심오한 혁명적 통찰력과 분석력, 박 달 동지에게 주는 하나하나의 혁명 과업에서 우리는 더욱 우리의 수령을 흠모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며 긍지를 느끼게 된다.

박 달 동지는 김 일성 동지께서 주신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한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통일 전선 운동과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는 한편 항일 무장 투쟁을 적극 지원한 투쟁의 력사적 사실을 쓰고 있다.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는 항일 혁명 투사들의 애국주의와 불굴의 혁명적 정열을 유감 없이 말하여 주고 있다.

원쑤들에게 체포되여 일제의 간악한 야수적 고문의 철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우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혁명 투사들의 불요 불굴의 투지를 더욱 뚜렷이 보여 준다. 그들은 가혹한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고 철창 속에서도 재판정에서도 《비둘기장》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항일 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내면 세계와 영웅적 행동을 보게 된다. 일제의 간악성과 야수성 앞에서도 혁명적 투지를 굽히지 않고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투쟁의 길을 이어 혁명열을 불태워 투쟁한 투사들의 모습은 소박하면서도 생동한 언어 속에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박 달 동지는 《청년들에게》란 소제목에서 자기의 혁명적 활동에 비추어 우리 청년들에게 간곡한 부탁의 말을 쓰고 있다.

《… 오늘 날 누가 이 땅 우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누구에 의하여 이 땅 우에 전 인류의 리상이며 우리의 위대한 꿈인 공산주의 락원이 건설되고 있는가》

박 달 동지는 《우리가 걸어 온 력사와 오늘날의 현실과 우리 자신들의 생활이 명확하게 말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쓰고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견결히 보위하며 당의 결정, 지시와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적 품성을 소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탁은 혁명 투쟁의 간고한 시련 속에서 체험한 바에 기초한, 김 일성 원수의 간곡한 교시를 실천하는 투쟁의 길에서 체험한 바에 기초한 부탁이다. 따라서 그 부탁은 당에 충실한 우리의 가슴을 끓게 하며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겨진다.

끝으로 정 웅 동지의 《그들은 죽지 않았다》가 수록되여 있다.

정 웅 동지는 김 형권 동지와 최 효일 동지들의 애국적 활동과 그들의 불요 불굴의 투지를 특히 감옥에서의 투쟁을 통하여 심히 격동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서로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려는 고결한 심정 속에서 우리는 혁명 투사들의 참다운 면모를 더욱 심오히 보게 된다. 그들은 일제의 야수적인 고문과 무거운 쇠사슬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감방 안의 잡범들을 교양하고 투쟁에로 불렀다.

그들의 투쟁이 고난에 부닥치고 일제의 야수적 고문에 몸마저 지쳤을 때 김 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의 영웅적 활동은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그러므로 최 효일 동지는 사형 언도를 받고도 슬퍼하지 않았으며 김 형권 동지는 일제의 야수적 십자가 형틀 앞에서도 자기의 혁명적 지조를 꺾지 않았다.

우리는 이 혁명 투사들의 투쟁의 기록인 《혁명 전선에서》를 읽고 자꾸만 그를 읽고 또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 글 속에서 우리의 혁명 투사들의 붉은 심장과 애국적, 영웅적 행동을 력력히 볼 수 있는 까닭이다. 우리는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 공산주의자들의 참된 모습을 보며 자신을 그러한 참된 공산주의자로 단련시키기 위한 충동으로 끓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혁명 투사들의 고귀한 사상 감정의 세계를 보게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며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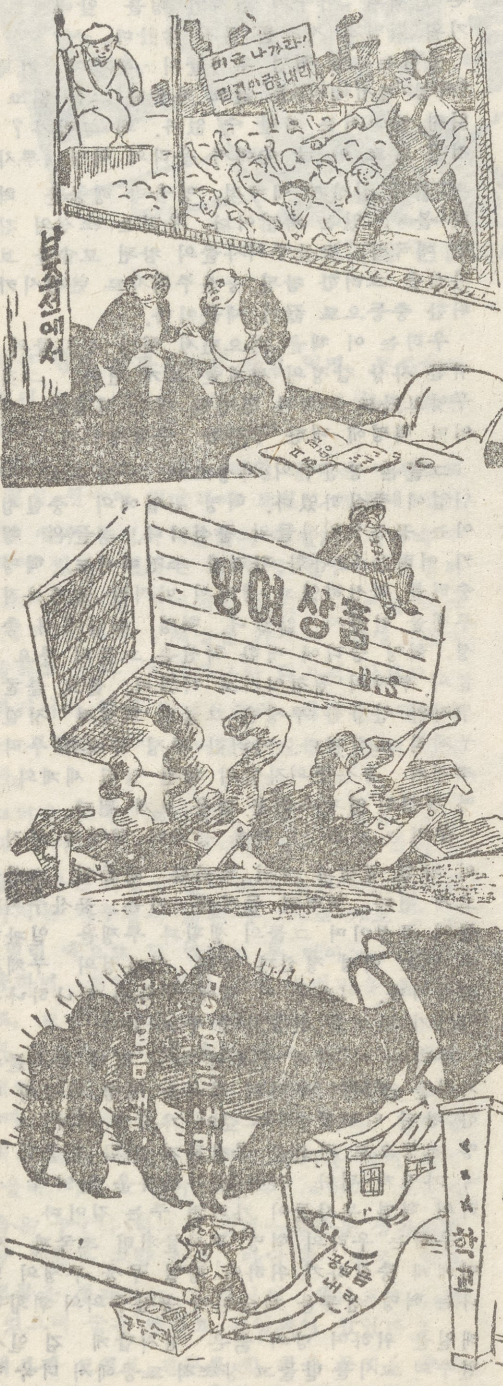
그들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혁명 위업에 충실하였다. 혁명 위업에의 충실성,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품성이다. 그들은 형용키 어려운 곤난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의 승리를 확신하였고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혁명 위업에의 충실성,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은 그들의 불요 불굴의 투지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불요 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투쟁은 그들의 혁명적 정열의 구체적 표시이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참된 정신 세계와 혁명 투쟁의 영광스러운 길을 보게 된다.

우리는 또한 이 책을 통하여 혁명적 동지애의 참된 원천과 그의 고귀한 행동의 모범을 보게 된다. 혁명적 동지애—이는 공산주의자들의 품성이며 그들의 생활과 투쟁을 일관하고 있는 혁명 정신과 참된 인간성의 구체적 표식이다. 이것은 이 책에 수록된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그를 확증하여 주고 있다.

우리는 이 책에 수록된 항일 혁명 투사들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의 빛나는 혁명 전통에 대한 참된 리해를 더욱 깊이 가지게 되며 그 혁명 전통으로 자신을 무장하기 위한 충동을 더욱 가지게 된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우리의 혁명 투사들이 가리켜 주는 길이다.

우리는 우리의 혁명 투사들처럼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기 위하여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공산주의의 휘황한 래일을 위하여 당의 붉은 전사답게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받들고 창조적 로동에서 더욱 힘차게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며 전진할 것이다.

만수의 세계 려행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6차 회의에서 채택한 서한은 남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에게 번개같이 전하여져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과 청년들을 찾아 갔다. 어느 공장 앞에 이르니 많은 로동자들이 사무실 앞에 모여 있었다. 한 청년이 나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은 최저 생활비의 3분지 1도 못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주인놈들은 벌써 네달 째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로동 시간이란 17 시간인데 로동 보호가 없는 데서 우리는 마소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달에도 수십명의 사망자와 불구자가 생긴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660 만의 실업자가 있는걸 아시지요. 이제는 우리도 더 참을 수 없습니다. 앉아서 굶어 죽느니 보다는 일어서서 미국놈과 리 승만이와 싸울 작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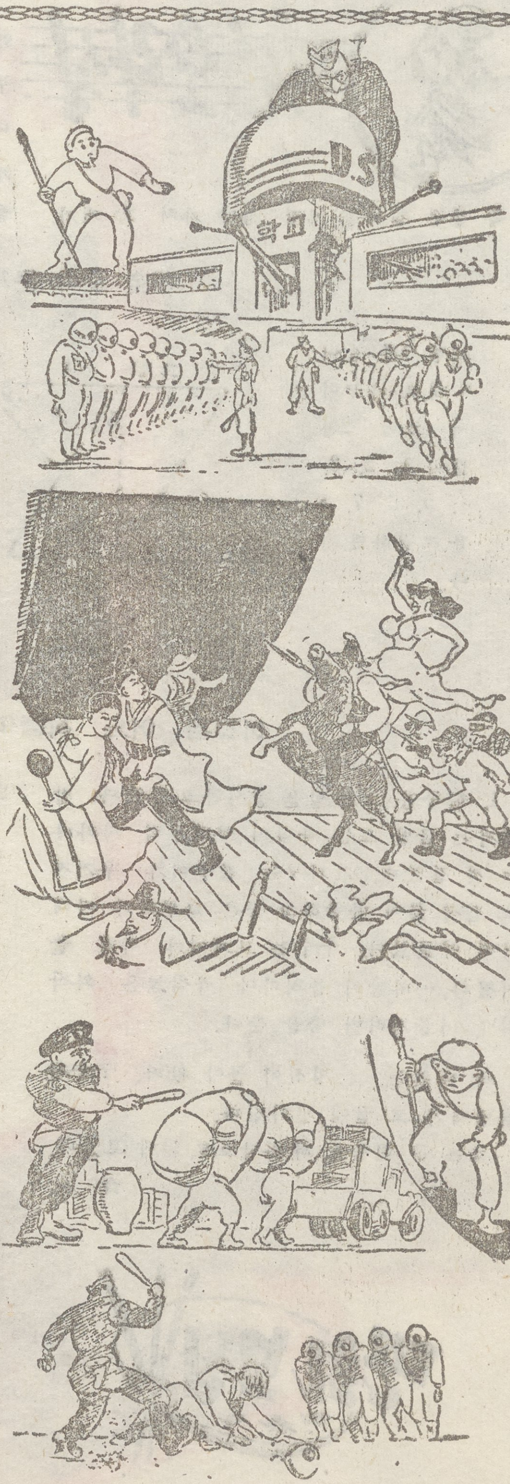
조그마한 개인 방적 공장을 찾아 갔더니 주인은 한숨부터 쉬였다.

《남조선 중소 기업은 말이 아닙니다. 원료를 미국놈들에게서 사야 하는데 그것이 금값이랍니다. 남조선 중소 기업의 4분지 3이 완전 휴업 아니면 조업 단축하고 있으며 4,000 여개나 파산 당했습니다. 별 수 있습니까! 미국놈들이 중소 기업의 굴뚝에다 딸라의 마개를 씌우고 미국 잉여 상품이 물 밀듯 밀려 들어오니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한을 보니 우리 중소 기업가도 살'길이 열려 있습디다. 우리가 살'길은 미국놈들을 몰아 가게 하고 통일하는 길입니다. 서한에 있는 것 처럼 우선 남북의 경제 교류를 해야 합니다. 미국놈의 썩은 물건이 아니라 북에서 쓰고 남은 것들을 남에 들여 와야 합니다.》

나는 학교 앞에서 공납금을 내지 못하여 쫓겨난 아들의 손을 잡고 서 있는 한 농민을 만났다. 《국민 학교를 졸업하자면 적어도 18 만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학교는 그놈들의 모리장입니다. 리 승만이는 교육비는 쥐꼬리 만치 내고 그저 군사비만 늘구고 있답니다. 북조선에선 중등 의무 교육제까지 실시되고 있는데 남조선에선 그놈의 잡부금이라도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아이들도 다 공부시킬 수 있겠는데… 그저 미국놈들이 원수입니다.》하고 그는 말하였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불쌍하게 삽니다. 매년 300 만의 절량 농가가 생기고 금년엔 풍수해에 백만의 리재민이 나서 아우성 칩니다. 우리 농민들도 북반부 농민처럼 살기 위해 싸우겠습니다.》하고 말을 이었다.



금년 3월에 재학생 강제 징집을 반대하여 15 일간이나 전결하게 투쟁한 서울 고등 공업 학교를 찾아 가니 학생들은 한창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다.

배속 장교란 놈이 소리를 꽥꽥 지르며 칼자루로 학생들을 후려 갈기는 것이 보였다. 훈련이 끝나자 한 학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매일같이 군사 훈련만 시키는 학교를 차라리 련병장이라고 부르는게 좋을겝니다. 그리고 그놈들이 배워주는 것이란 <미국은 좋다! 돈이 좋다! 하느님 만세! 북진 통일!> 이것 뿐입니다. 우리는 학원의 군사화와 노예 교육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거리에서 나는 청년 화가를 만났다. 그는 실업자였다.

《우리는 북반부의 인테리들이 부럽습니다. 우리에겐 일'자리가 없습니다. 춘향전, 심청전 등 우리의 고귀한 민족 문화는 미국 양키 문화에 의하여 무대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는 인테리들의 자살 수가 늘어만 갑니다. 나의 친구 하나는 살'길이 없어 자살하면서 <나의 붓을 관에 넣어 달라!>고 쓴 유서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원나 축전에서의 빛나는 성과를 잘 들었습니다. 래년 8. 15 해방 15 주년 예술 및 체육 축전을 평양에서 하자는 것을 절대 찬성합니다. 미국놈과 리 승만이는 결사 반대할 것이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하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남대문 곁에서 괴뢰군 병사와 이야기 나였다. 그는 말하였다.

《서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죠—전쟁이냐? 평화냐? 분렬이냐? 통일이냐? 고—우리는 평화이며 통일이다! 고 대답합니다. 나는 지주'집 아들 대신 강제로 끌려 나와 치욕의 <국군> 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미국놈들의 민족적 멸시, 상관놈들의 기압 만행, 살인적인 훈련과 고역의 로동! 정말 죽지 못해 삽니다. 거기다 먹이는 것이라군 <나이롱국>에 쥐기밥 한 덩이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에겐 상관놈들을 쏴 죽이고 집단적으로 탈주하는 사건이 늘어 가고 있답니다. 미국놈이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하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병사들은 총'부리를 미국놈한테 돌릴 것입니다.》 그 병사의 목소리는 미제와 리 승만 도배에 대한 분노로 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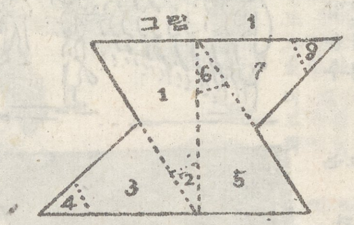
글, 박 송수 그림, 전 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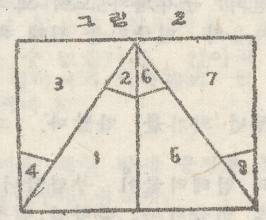
청년 오락실

똑 같은 길이를 가진 성냥 가치 25 개가 있다. 한 동무는 13 가치를 가지고 다른 동무는 12 가치로써 칸 만들기 놀음을 하였다. 두 동무는 제 각기 같은 규격의 칸 6 개를 만들었다. 두 동무는 어떤 모양의 칸들을 만들었겠는가?

10호 오락 문제의 해답

그림 1과 같이 8 개로 나누어서 그림 2와 같이 1. 2. 3. 4. 5. 6. 7. 8 을 조립하면 된다.





(현) (상) (문) (제)

이것은 어느 작품의 한 구절인가?

1. 한동안 그는 밭을 응시하고 있었다. 밭에서는 금방 모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같았다. 거기에는 강냉이가 우거지고 감자 꽃이 만발하고 콩은 꼬투리가 다래다래 영글었다. 수수는 모개미가 척척 늘어졌다.…바람이 불적마다 곡식들은 와삭와삭 너울거리며 춤을 춘다.

곽 바위는 제 정신이 돌아 왔다. 구수한 흙냄새가 코 끝에 맡아진다.

그는 흙 한줌을 허'바닥으로 핥아 보았다.

☆

2.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여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여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만화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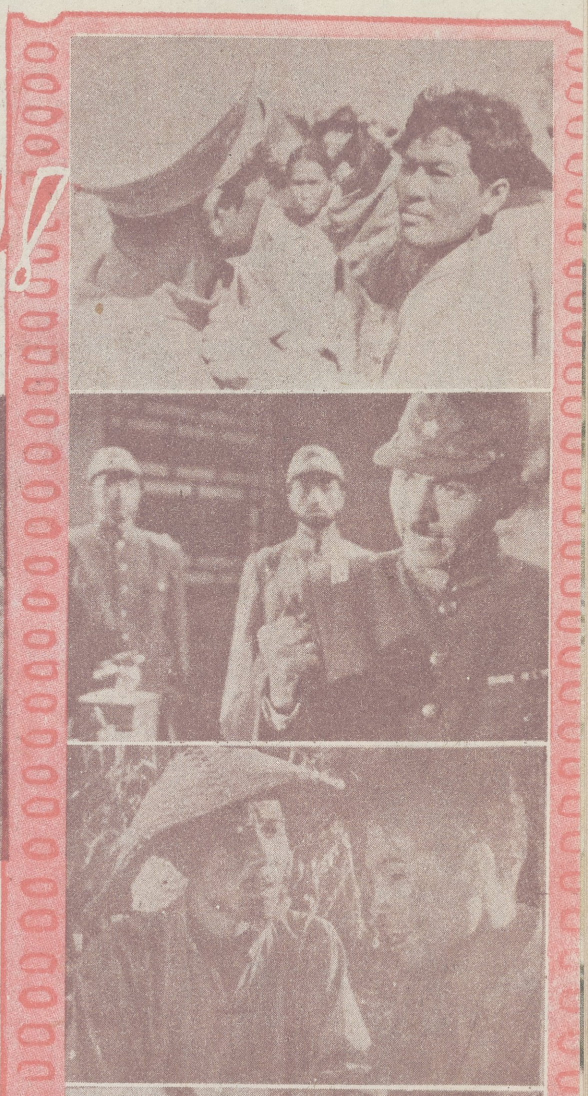
독자 동무들! 《청년생활》 10호에 광고한 만화 모집에 계속 응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독자들로부터 작품들이 투고되여 왔는바 계속 좋은 작품들을 투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보낼 곳은 평양시 선교 구역
민청 출판사 《청년생활》 편집부

전선 예술 영화

미래를 사랑하라!





민청 중앙 위원회 추천 작품




삼지연에서 정종여
一九五九년 가을